朝鮮日報 夕刊 四日(月) 本紙朝夕刊十二頁

에國皇帝御一行 佛領『지』港에到着

數個月間砲煙彈雨下의生活에心身御疲勞

英艦『다』號로亡命乎

【지부티三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는 皇后메네殿下皇太子殿下其他皇族 政府高官等을 거느리고 三日午後二時 지부티港에 到着하엿다 同港에는 佛領소마릴란드 總督代理베스─흥氏를 始하야 駐屯軍司令官 政廳高官等多數가 出迎하야 皇帝一行이 上陸하는 同時에 駐屯軍은 皇禮砲로서 敬意를 表하엿다 皇帝一行을 迎接하엿다 셀라시에一世陛下는 마코넨殿下와 同伴하야 실베스─總督과 同車하야 爲先總督官邸로 向하고 皇后메네殿下는 皇太子殿下와 함께 軍司令官의 自動車에 同乘하고 皇帝에 뒤따라 官邸에 入하엿다 數個月에 亘한 砲煙彈雨中에 挺身奮戰에 當하다가 마친내 國都를 賊軍에게 맛기고 몸을 國外로 避하는 失意한 皇帝의 얼굴에는 疲勞한 비치 보혓다 心勞로 日夜를 보낸 皇后도 失意에 憔悴되어 沿道의 民衆도 不少한 感動을 바덧다 總督官邸에 到着하신 皇帝一行은 二日以來 最初의 食事를 攝取하고 即時 休息을 取하엿다 皇帝一行은 皇子皇女等을 始하야 外相케다우氏等 高官三十名과 四日朝 英國軍艦으로 爲先아덴港에 向할려이다

【지부티三日發同盟】三日正午 當地에 御到着豫定인 에디오피아皇帝하일레·셀라시에一世陛下의 一行은 當地에서 何國으로 亡命旅行에 오르리라는 說이 傳하여 各方面의 注目을 끌고 잇는 此際 三日午前 아덴港으로부터 英國驅逐艦다이아나號가 當港에 入港하엿슴으로 陛下의 一行은 同艦으로 亡命하리라고 觀測된다 (寫眞은 에國皇帝)

[illegible]을 [illegible]하야 最後의 努力을 試할것이 아닌가하는 觀測이 行하고잇는데 果然 親히 理事會에 出席하신다면 못을러나 首相의 理事會方針과 正面衝突을 招來하야 理事會未曾有의 重大難局에 直面할것으로 憂慮된다

英艦으로亡命說을 英當局은否定

【倫敦三日發電通】英國海軍省은 三日아덴港으로부터 驅逐艦다이아나號를 지부티港에 急派케한것은 同港에 英艦다이아나號를 急派케한것은 必要한 [illegible]를 講究키爲함이다 에디오피아皇帝一行의 亡命을 爲하야 提供키爲함이라는 報道를 明白히 否定하엿다

外交機關을通해 끗까지獨立維持

聯盟理事會에親히御出席乎

에國皇帝의最後意思

【倫敦三日發電通】에스제지레리그랍通信社는 三日午前 아디스아베바特派員으로부터 左와如한 記者四名(記者도 包含)에게 特히 皇后陛下를 通하야 只今 朕에게 남은 唯一의길은 國外로 退去할것뿐이다 이것은 聯盟의伊에紛爭解決失敗와 伊太利軍의 武器가 優秀한結果이다 라고 悲痛한 말슴을 주시엿다 그리고 陛下는 首都를 御退去한後라도 다시 外交機關을 通하야 어데까지 에디오피아의獨立維持를 爲하야 奮鬪할 御意思라고 拜察된다

【쥬네브二日發同盟】에디오피아皇帝가 아디스아베바를 御退去하엿다는 報道가 二日正午 쥬네브에 到着하야 聯盟當局의 [illegible]는 不明이나 때마츰 五月十一日 英國代表 이든外相 司會下에 聯盟理事會를 開催하야 伊에問題를 審議하기로 되어잇서 皇帝는 親히 에디오피아代表로 쥬네브로 向하시어 祖國

天皇陛下親臨下 特別議會開院式

【東京電話同盟】昭和十一年度追加豫算案及 諸案인 農村對策 其他에 關한 重要法案의 協賛을 求하기 爲하야 憲法에 依하야 一日에 召集된 第六十九特別議會開院式은 天皇陛下親臨下에 四日午前十一時 貴族院에서 擧行되엿다

勅語

【東京電話同盟】本日 開院式에 臨하신 勅語는 左와 如하다

朕 玆에 帝國議會開院式을 行하고 貴族院及衆議院의 各員에 告하노라

帝國과 締盟各國과의 交誼는 益益親厚를 加함으로 朕은 깁히 此를 깃버한다

今次東京에 이러난 事件은 朕이 遺憾으로 생각하는바이다 朕은 이 忠良한 臣民이 和衷文武一致 力을 國運의 進暢에 有効케하기를 期하라

朕은 國務大臣에 命하야 緊要한 追加豫算案及 法律案을 帝國議會에 提出케하엿다 卿等은 朕의 意를 體하야 和衷審議하야 協賛의 任을 다하기를 望한다

[illegible] 宣言을 發表하엿다 하일레·셀라시에陛下는 首都를 離去하기로 決定하기 前에 아직도 首都에 잇서 活動中인 英大

新內閣財政政策의動向

모든稅는結局 大衆한레轉嫁

(二五) 徐椿

그러면 大衆[illegible]이란 무엇이냐? 大衆課稅란 무엇이냐? 하면 그範圍는 大槪 如左하다. 몬저 大衆課稅를 말하면 이것은 主로 間接稅와 [illegible]에 關하는것인데, 最初의 納稅者가 누구임을 무를것이 업시 그稅金은 結局, 消費大衆이 負擔하게 되는것을 指稱하는것이다。例하면 酒稅에 對한 直接의 納稅義務者는 酒造業者요 砂糖消費稅에 對한 直接의 納稅義務者는 砂糖製造業者나 各業者가 此를 酒又는砂糖의 生産費에 添加하야 그賣價를 決定하는것이기 때문에 酒稅, 砂糖消費稅를 事實에 잇서서 負擔하는者는 酒, 砂糖을 消費하는 國民大衆이다。그러니까 이經過에잇서서 [illegible]의 稅金을 直接으로 國庫에 納入하는 者는 各業者이나 轉嫁作用에 依하야 間接으로 負擔하는者는 消費大衆이다。이런 意味로보아 此를 間接稅又는 大衆課稅라고하는것이다。그러고 間接稅又는 大衆課稅는 酒, 砂糖의 例에서 보는바와가티 生産價格에 編入되어 價格의 一部分을 構成하는者이기 때문에 이方面의 增稅는 直接且即刻으로 物價騰貴를 招致하는것이다。

此에 反하야 財產課稅는 主로 直接稅의 部類에 屬하는것이다。例하면 所得稅, 臨時利得稅, 相續稅, 營業收益稅가튼것은 理論上, 此를 酒, 砂糖의 例에서 보는바와 가티 賣價에 編入하야 此를 他에 轉嫁하거나 不可能한것인故로 이것은 直接으로 이稅金을 國庫에 納入할 責任을 가진者가 아조 負擔할수밧게 업는것이다。故로 此를 前記間接稅에 對하야 直接稅라고도하고, 이런 種類의 稅金을 負擔하는者는 흔히 財産家라는 點으로보아 財產課稅라고도 하는것이다。財產課稅와 大衆課稅와의 兩者間의 本質的差異는 納稅義務者가 그稅金을 第三者에게 轉嫁할수가 잇느냐? 업느냐? 하는 一點에 잇다。即, 轉嫁可能의 稅는 此를 間接稅又는 大衆課稅라고하고, 轉嫁不可能의 稅金은 此를 直接稅又는 財產課稅라고 하는것이다。

그리고 [illegible]의 增稅에 잇서서는 大衆課稅를 避하고 財產課稅主義를 쓰자는것은 말하면 財産家에게 課하는것인 同時에 此를 大衆에게 轉嫁할수 업는 性質의 稅目, 即 所得稅, 相續稅, 資本利子稅, 營業收益稅等等에 課稅하고 아모리 만하 課稅해도 此를 即時, 消費大衆에게 轉嫁할수 잇는 性質의 稅目, 即, 酒稅, 醬油稅, 淸涼飮料稅, 砂糖消費稅等等에는 課稅치 말자는것을 意味하는것이다。그러나 여기서 한가지 미리 말할것은 우리는 大體로 보아 轉嫁의 可能, 不可能을 標準하야 財產課稅와 大衆課稅로 區分해 보앗스나 租稅의 本質을 根本的으로 究明해 보면 結局 모든 稅는 程度의 差는 잇슬지언정, 다 大衆에의 轉嫁가 可能하다는 一事다。

間接稅에 對한 轉嫁可能은 이미 말한바어니와 所謂, 直接稅又는 財產課稅도 此를 巧妙한 方法에 依하야 大衆에게 轉嫁할수가 잇는것이다。例하면 第一種 所得稅인 法人所得稅를 增加한다고하면 此에 依하야 法人인 企業會社의 稅金負擔이 그만치 增加될것이다。此를 假令, 萬圓이라고하자。會社는 이萬圓의 增稅로 因한 損失을 他에서 補塡하기爲하야 (一)或은 口實을 지어서 原料價格을 나릴수도 잇슬것이요, (二)又는 使用人待遇를 節約할 方途를 講究할수도 잇슬것이요, (三)又하면 使用人一部의 解雇도 할수가 잇슬것이다。도한 地租는 이것이 財產課稅와 類似하나 小作料의 引上에 依하야 此를 小作人에게 轉嫁할수가 잇다。故로 모든 稅는 다 大衆에 轉嫁할수가 잇다는것이다。(未完)

佛蘇條約에對抗 日獨提携論擡頭

滿獨通商協定과 南洋委統不干涉聲明으로

具體策確立機運增大

蘇極東進出 牽制를目標

【東京電話同盟】佛, 蘇相互援助條約締結에 對抗하기爲하야 日獨同盟說은 一時世界를 風靡한說이데 最近에이르러 日獨兩國間에 現實上으로 滿獨通商協定이 圓滿히 成立된一方 獨逸政府의 失地回復運動으로 日獨間의 唯一의 抗爭原因이라고 觀測되든 南洋委任統治問題에 關하야 獨逸外務省代辯者는 南洋委任統治領의 回復等은 考慮하지안는다고 公式聲明을 發하야 禍根을 一掃하는 措置를 取하는等 依然 日獨親善步調에 拍車를더하게되엿다 이에 關連하야 日本은 蘇聯邦이 日獨兩國을 對象으로佛蘇相互援助條約을 成立시킨以上 日本도亦是 蘇聯邦의 思惑을그대로 日獨間에 何等提携의 具體策確立으로 蘇聯邦의極東制壓에 對抗할것이라는說이 有力하게擡頭되는것은 注目된다 그러나 이問題에關하야 有田外相은 去月二十五日 外國記者團과의 會見에잇서서 政府는 日獨同盟과如한것은 아직考慮치못하엿다고 言明하고잇스나 獨逸의東方進出이 直接蘇聯邦의 極東進出을 牽制하는重大關係가잇슴으로 對獨接近으로 蘇聯邦의 極東政策을 刺戟하고結局에잇서 日蘇關係를 改善할수잇다고하면 世界平和에寄與하는意味에서 外交의根本方針은 爲先親獨政策의 決定으로써 一石二鳥의 效果를 擧하게될것임으로 그推移는 注目되어잇다

僞伊政府를樹立 事實上伊屬領化

伊征에完成과英朝野의意向

【倫敦二日發同盟】東阿一角에서 三千年의 歷史를 자랑하는 에디오피아帝國도 하일레·셀라시에 一世의 亡命으로 事實上 崩壞되고 伊太利政府의 完全한 掌握下에 도라가게도 目睫에 切迫되엿다고 解釋되는데 그統治에 關하야 果然 如何한 措置를 施行할는지 頗히 重大關心되여잇다 特히 英米以下 各國政府는 에디오피아國에 對하야 公使를 派遣하고 其他 英佛政府는 에디오피아國內에 各利權을 가진 關係上 伊太利政府의 措置에 重大關心을 갓고잇는바 그方法如何에 依하여는 今後 相當히 複雜한 事態가 惹起되리라고 觀測된다 特히 英國政府가 靑나일流源 라나湖의 利權 其他 重大한 經濟權益을 所有하고 잇는바 에디오피아의 伊太利保有에 對하야 가장紛料를 生할 可能性이 만흔現狀에잇서서 伊太利政府가 取할方策은

一、伊太利主權下에 斷然에디오피아를 併合하고 屬領化할것인가

一、에디오피아主權下에 傀儡國을 樹立하야 事實上 同政權을 伊太利政府의 掌中에 把握할것인가

하는 二個의方法이 잇는데 英國當局과 倫敦財界方面의 見解를 綜合하면 에디오피아問題에 對한 朝野의 興望으로는 一、英國政府로서는 伊太利政府가 에디오피아統治의 措置를 그무렵지안케하는 限에 에디오피아政府와 關係國의 現存條約을 遵守하고 各國의 權益을 尊重하기를 期待한다

一、伊太利가 王을 다그國太守라 스·그그사領主下에 新政權을 樹立하야 이와平和條約을 締立하고 에디오피아의 獨立을 保持할方針이라고 觀測되는데 이것을 英國政府의 意圖는 [illegible]의方針에 依하야 態度를 決定할必要가잇슴으로 미리 實否를 表明할수는 업스나 적어도 에디오피아獨立 維持에 對하여는 好意를 가지고잇다

一、一方 英國財界에서는 에디오피아經濟開發에 多額의 資金을 要하는關係上 英國政府는 講和交涉에잇서서 特히 이點을 考慮하야·英國財閥의 參加를 確保하기를 要望한다

首都治安回復次 伊軍至急入城電請

【巴里三日發同盟】佛國政府는 三日深更 아디스아베바駐箚佛國公使로부터 飛電을 接受하엿다 右報告에 依하면 首都의 事態가 자못重大함을 憂慮하고 此際 伊太利軍을 入城케하야 治安回復外人保護를 圖케하라가지못하다는 結論에 到達하엿다 右決定에 基하야 三日午前 伊太利政府에 對하야 前衛部隊의 至急首都入城을 電請하엿다

議會消息

五日議事手續終了 六日부터質問戰!

【東京電話同盟】未曾有의 [illegible]을 가진 第六十九特別議會는 四日開院式, 五日全院委員長選擧, 各常任委員決定에 依하야 完全히 議會開始의 諸手續을 完了케 될으로 드듸여 六日午前十時부터 貴族院本會議를 開會하야 廣田首相의 施政方針, 有田外相의 外交演說이 잇고 다음 馬場藏相이 發言을 求하야 一二·二六事件의 全責任을 [illegible]하는 [illegible]政府의 財政方針에 對하여 財政演說이 잇스리라 [illegible]한 時間形式上 質問者의 第一日은 正午散會케될것이다 一方衆議院은 午後一時本會議를 開하야 首相, 外相等이 貴族院에서한것과同樣의 演說을하는 外藏相은 財政經濟演說을 하고 다음 寺內陸相의 二·二六事件報告와 肅軍演說後 비로소 質問의 攻防戰이 展開되고 同日第一陣으로 小山松壽氏(民政)가 一般施政問題를 내걸어 登壇, 第二陣에는 濱田國松氏(政友)가 同樣으로 施政全般에 亘하야 追求하고 第三陣에는 櫻井兵五郞氏(民政)가 財政經濟[illegible]에서는 [illegible]氏(政友)가 [illegible]하야 모든 [illegible] 가 [illegible]에 關하야 [illegible]하는데 初日은 右四氏뿐으로 끗치고 松村義一三氏(民政)와 [illegible]氏(政友)와 [illegible]安藤正純氏가 [illegible] 各代表의 質問은 七、八兩日에 亘하야 [illegible]인데 [illegible]와 [illegible]가 [illegible]은 [illegible]이다 三日째의 八日 午前十時부터 開會되야 本會議와 併行하야 一問一答의 白熱戰이 展開될것이다

藏相、六日議會에서 增稅의決意를披瀝

【東京電話同盟】馬場藏相은 來六日議會의 財政演說에 잇서서 十一年度追加豫算의 [illegible]을 [illegible]한後 新財政政策의 大綱으로 財政計畫을 樹立할 必要를 述하고 增稅 決意를 表示하고 이와 併行하야 公債의 [illegible] 低金利의 [illegible] 財政[illegible]의 [illegible]的助長에 關한 政府의 方針을 披瀝하야 從來와는 異例의 演說을 行할터이다 그리고 增稅와함께 特히 言及의 [illegible] 同演說에잇서 注目할 事項인데 이것은 事實 [illegible] 通信事業等의 增收를 十一年度부터 暗示하는것이라하야 자못 注目된다

左翼派絕對勝利

共產黨도七十一名이나當選

次期政權의 左翼移動確實化

佛國總選擧投票結果

【巴里四日發電通】佛國總選擧第二回의 投票結果는 三日夜午前一時에 이르러 거이全部가判明되엿는데 左翼諸派는 豫想以上의 壓倒的優勢를 示하야 今後四個年間에 下院에서 絕對多數黨을 占할것은 確實하게되엿스나 따라 루브랑大統領은 總選擧結果에 依하야 레옹·블룸社會黨首에 對하야 次期內閣의 組織을 依賴할것이다 그리고 三日投票結果는 左와如하다

▲左翼諸派

總計		三七五名
內譯	社會黨	一四五
	急進社會黨	一一五
	共產黨	七一
	其他	四四

▲右翼諸派

總計		二三八名
內譯	民主共和黨	九〇
	左翼共和黨	八三
	其他	六五
累計		六百十三名

各國駐屯軍이 에首都의治安維持

【아디스아베바三日發同盟】아디스아베바駐箚各國公使館은 各自國居留民을 公使館에 收容하고 萬全의 保護에 當하여오스나 今市民의 掠奪이 猛烈의 度를加하게되고 暴民의 叛亂 勃發하게되여 三日午後마치내 各駐屯軍은 兵力으로서 斷乎 治安에 當할 旨를 發表하엿다

『아디스아베바』 中樞官衙灰燼化

【지부티三日發同盟】三日午後아디스아베바로부터 지부티에 到達한 報道에 依하면 三日未明 아디스아베바中心街에 火災가이러나 政廳, 에디오피아國立銀行以下 中樞官衙는 全部 灰燼에 歸하고 匪團의 掠奪行爲는 더욱 猖獗을 極하야 終日 銃聲이 不絕하고 匪團은 數百臺의 車에 掠奪品을 滿載하고 逃走하엿다 한다

八面鋒

◇ 血戰二百十三日、에디오피아皇帝 勢窮力盡하야 國都를버리고 海外로 蒙塵。

◇ 興亡이 有數하니 敗한들엇지하리오만은 最後까지 싸운것만은 悲壯。

◇ 國都退却으로 戰爭行爲의 終熄을 圖함은 國都以西의 伊軍進出을 막는 한方法。

◇ 그리하야 『라나湖中心의 一帶를保全함은 英勢力下에 殘命을維持하라는 一策。

◇ 國土는大部分 빼앗기엇스나 獨立精神은 어데까지살리겟다하는것이 國王의 意思。

◇ 國際聯盟이여、일오착이로되얏스니、그대들의 最後態度으루엇으로 維持하라하는가。

人事·集會

▲鄭一鳳氏(經學院司成)新任人事次來社

▲金完鎭氏(經學院司成)同上

▲朴元植氏(朝鮮殖產銀行 大田支店)赴任人事次來社

▲李相喆氏(每日申報販賣部長)四日 市內 瑞雲町一四六 自宅에서 逝去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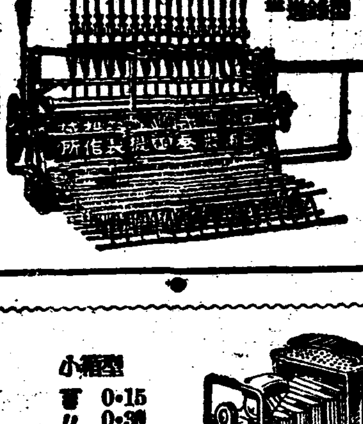
▲金圭冕氏(京城商工聯合大運動會事)全京城商工聯合大運動會終了人事次 本社來訪

▲金成集氏(同幹事)同上

宗敎事務擔任者會議

心田開發을 徹底케하기 爲하야 各宗敎와 當局과의 連絡을 緊密히할 最初의 試驗으로 各道宗敎事務擔任者協議會는 來廿七、廿八兩日 總督府第三會議室에 招集되여 澁澤學務局長의 訓示가잇슨後 嚴社會課長統裁下에 心田開發運動에 伴하는 宗敎의 振興方策과 宗敎家의 奮起를 促할 具體策을 中心으로 協議할터이다

日の本式製莚機 特許實用新案 大邱府大和町 總發賣元 濱田農具機店 電話七四六番 振替大邱三八〇番



謹告! 黒角楕圓形印(四月二十七日紛失) 振威郡古德面防築里 趙伯元
潮流의 改善은 上下의 急務 一日의 能率 百枚 一枚工賃 一錢二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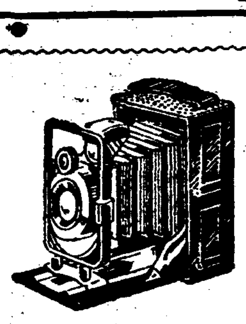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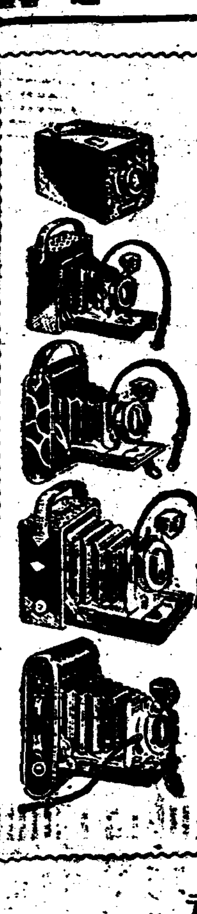
釜山本町一 岩瀨寫眞機店 電話七五五・振替七五五

純正商標見本

直輸入販賣商 仁川府支那町 同福公 京城總賣店 京城南大門通四丁目一四 李泰漢商店 電話本局二五一三番

제일독원조 조선세창가표 비누는 물끼잇는존으로(값을) 문대도 조금 번지안는것이특색입니다 근래각지방소매상과야시에서와위조품을취급하는일이잇사오니 세시찾칠에주의하야주시압

社會式株業鑛菱三 所鑛貢山釜 町島牧府山釜 番一五一一話電

小箱型 ¥0・15 ¥0・30 ¥0・50
小ポケット型 ¥0・60 ¥0・80 ¥1・00
小コダック型 ¥1・00 ¥1・30 ¥1・50
ベスト角蛇腹 ¥1・70 ¥2・80 ¥4・00 ¥6・00
ベストコダック型 ¥2・50 ¥3・50 ¥6・00 ¥7・50
プリンス號 大名刺 ¥24・00 小名刺(A) ¥18・00 同(B) ¥10・00
特約店 一邑一店에限함
●カタログ要二錢 ●仕入은直接製造元에서 ●申込하시는店名스탬프捺印後

單一圓으로高級카메라

單一圓짜리機械로 얼마나 잘 직을수잇는가 製造元의 東京카메라製造所가 널리 全鮮에 實物을 宣傳하기爲하야 精巧한 蛇腹式카메라를 頒布합니다。本機는 小코닥型(左圖上으로부터 셋째)으로 體裁優美하고 高價의機械와가티 撮影도 鮮明하고 一般어린애도容易히직을수잇습니다 目下好評의 優良寫眞機입니다 至今은 카메라의씨-즌입니다 꼭 一臺만注文하십시요 注文은 宜上送料共郵手代用으로 (二錢切手五十四枚더지 三錢切手三十五枚)를 送付하시면 注文하는대로 두 구에게나 꼭직을수잇는 說明書附로 機械를 곳 送附하여드림니다、萬一、못에맛지안커든 他品과交換하여드리는故로 安心하시고注文하십시오

製造元 東京カメラ製造所 名古屋市東區大津町五丁目

電醫講習生募集

(希望者에게學則呈送함)

朝鮮高等電醫南鮮講習院 釜山府寶水町三ノ六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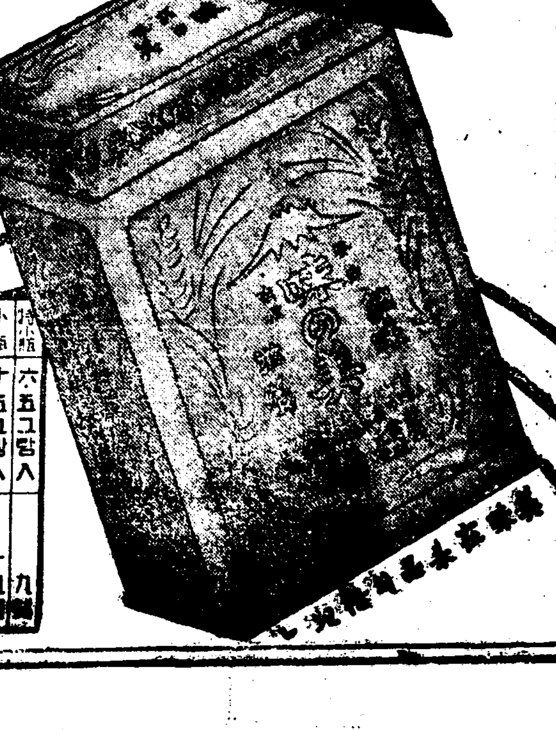
맛 좃 코 · 갑 싸 고
건강제가되는아지노미

집안단락은『아지노미』로부터
아들 『어머니오늘국은웨이럿케맛이잇서?』『어머니는웨엿가루를쳐요』『아들 거짓말! 엿가루를처도전에는이럿케맛잇섯서?』『아버지도 오늘국은웨이럿케맛이잇서?』

全鮮一手販賣所 京城·平壤 和信 全朝鮮和信連鎖店

성분 구루타민나트리움재래품은 百分의七六·三一『아지노미』는百分의九四·五七분량음식계를고맛은배이상납니다

調味界의驚異! 새로운
味の美가나왓습니다



小瓶	特小瓶	六、五그람入	九錢
小瓶		十五그람入	十九錢
揚罐		五十그람入	五十五錢
小罐		百그람入	九十五錢
中罐		二百그람入	一圓八十錢
大罐		四百그람入	三圓三十錢
全罐		一斤一〇〇그람入	七圓五十錢

「아지노미」는 어린 맛 이 잇습니다

「미노지아」는웨환영을밧나?

「아지노미」는정조쉬운흠이되다시조달하야 영선생을부터연구한결과이 성분에적절한조미해서 만드는것이니그런조 저의맛이 잇는것은 까닭
1、구루타민산이만히들어 맛이조은까닭
2、값이만코도 잡하 만나는까닭
3、가장맛가는까닭
4、오래두어도 좀처럼이 변하지안는까닭
5、화양요리에 는물론 우리 음식에 맛는까닭

東京衛生試驗所 優等賞牌受領
前朝鮮總督府中央試驗所長 農學博士 豐永眞里先生推獎
醫學博士 粟水正一先生

第十號第二六三七 報告書 依賴者 山口縣宇部市 味の美社
一、右 試驗品 味の美 分析ノ成績左ノ如シ
四、五七 グルタミン ナトリウム 九四、五七
昭和九年九月二十日 工業試驗所技師 江見淸一印
大阪工業試驗所長 所第一部長 工業博士 藤田茂一印
工學博士 許可市太郞印

三春行樂의最絕頂
混亂脫線의雜沓相
"꽃"에醉한長安의 이모저모
昨三日日曜行樂의總決算

◆◆◆◆◆ 춘일의 행락을 어떻게한 수많은 군중들로 장안거리가 기외 행락하다시피하야 이곳 저곳에서 자동차 전차 자전거등의 교통사고와 길 잃은아이와 싸움패 자동의 발생등 가지가지 이곳 저곳의 사고가 생기어서 시내각경찰서에는 어사고처리를위하야 큰혼잡을 이루었다 ◆◆◆◆◆

失家·出奔"언파레-드"

▲시내 봉래정(蓬萊町)사정목일백오번지 한수룡(韓壽龍)의생질 김옥기(金玉基)(三)는 이일밤에 창경원 갓다가 오는 길에 길을잃어버렸스므로 동대문경찰서에 차저달라는 수사원을하엿다

▲시내 행촌정(杏村町)칠십사번지 김영옥(金永玉)의손자 병철(炳哲)(九)은 삼일 명수궁(德壽宮)안에서 어되론지 행방불명이되엿다

▲시내 현저정(峴底町)일백칠번지 리경명(李景命)의장남 종열(鍾一)(九)과 시내명동정(明洞町)칠십번지 길빈레일(吉濱禮一)(九)이는 삼일에 놀러나가서 집에도라오지안햇다

▲김진철(金鎭哲)(六)이라는아이는 이일부터 서대문경찰서에 보호중이며 고양군뚝제면(高陽郡纛島面)사는 김옥례(金玉禮)(二)라는 메아는이일에 창경원에 구경하러갓다가 동행하엿다는 사람을 일코시내 죽첨정(竹添町)일정목부근에서 배회하고 잇는것을 서대문 경찰서에서 보호하고잇다

▲시내 대현정(大峴町)산(山)십록번지 민래봉(閔泰鳳)의 장남명식(明植)(六)은 마포(麻浦)파출소에서 보호중이다

交通事故

▲……사일 오전여섯시쯤 되어 황금정(黃金町)일정목 교차점 "카-부"에서 서대문(西大門)발 황금정(黃金町)행 경전(京電)이 백십팔호 전차가 탈선되어 약 이십분후에 겨우 복구되엿다 인명에는 피해가 업섯스나 이로말미암아 일시는 교통이 두절되여 칠팔대의 전차가 자련히 정거하고잇서 일대 혼잡을 이루엇다한다

▲……삼일 오후 려시반경에 시내 판수정(冠水町)십륙번지 아떼서 고재서(高在書)(三)가 운전하던 자동차에 판수정 십칠번지 한성렬(韓成烈)(五)이가 치어서 허벅다리에 전치 일주일간의 부상을 입엇다

▲……삼일밤 아홉시반경에 내 종로삼정목 네거리에서 시내 천연정(天然町)십삼번지 정택희(鄭宅熙)(二)가 운전하는 (京)칠칠이번 오시사호 자동차와 시내 영락정(永樂町)이정목 사십삼번지 허남열(許南烈)(二)이 가리고가는 자전거와 충돌되엿는데 다행히 사람은 상하지안햇스나 자전거에 약십여원가량의 손해가잇섯다

▲……이일 오후한시 오십분에 시내의주통(義州通)일정목일백오십일번지 쌀배달인 전우환(全承煥)(二九)과 시내관동정(館洞町)구십번지 함덕중(咸德重)(一九)두명은 자전거한대에 두사람이라고 가다가 시내교북정(橋北町)구십번지압 전차길에서 그때마츰수원호(水原號) 대양자동차부 (大洋自動車部) 운전수 최병호(崔炳虎)(二三)가 운전해가는 자동차에 바치여 다리와입술에 상처를 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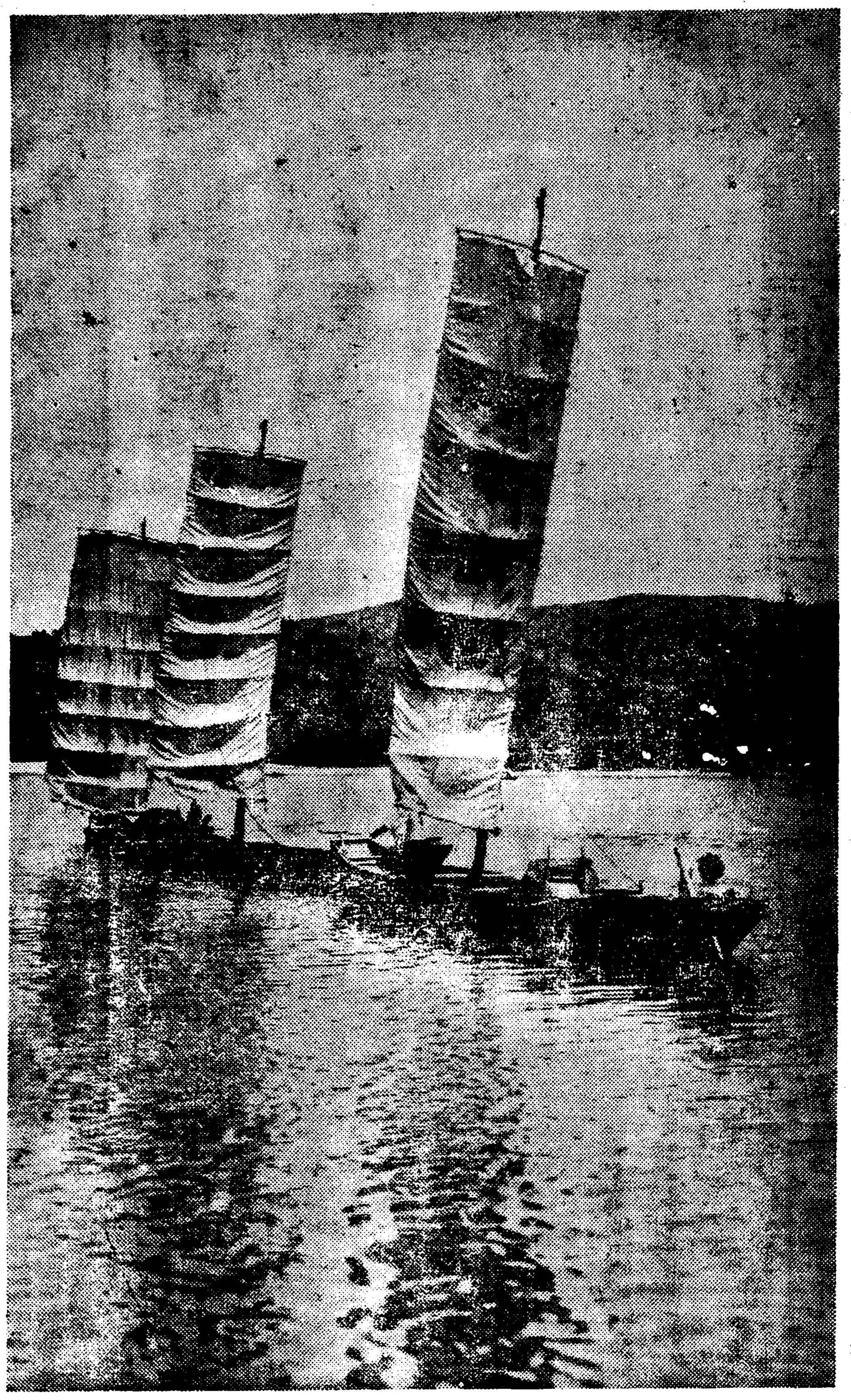
▲……삼일오전열시오분에 시내아현정(阿峴町)산(山)칠번지부

電車、뻐스 乘客延人員卅六萬餘名
探花客九萬餘
여동에수난곳은昌慶苑과京電
開苑·運轉以來初記錄

칠십만의 대경성이되여 시민이 처음으로맛는 오월첫공일인 어제사흔날! 봄은것은 종로(鍾路)바닥도 길을 거러갈수업스며 전차라는전차 자동차라는 자동차-좌우간어떤종류의 교통긔관을불론하고 한번타기만하면 다 시내리는것은 참으로 용이한일이아니엿다 장충단(奬忠壇)으로 창경원(昌慶苑)으로 동대문밖 식은운동장(殖銀運動場)으로 경성운동장(京城運動場)으로 도합면 으로는 훈련원운동장(訓文運動場) 으로 모여드는 어린이들! 간곳마다 인산(人山)이요 보는데마다 인해(人海)를이룬것은 어적게 이미적은바와갓거니와 이제그뀌소식을듯건대 이날에 제일수난곳이 경성전긔회사 (京城電氣會社)와 창경원(昌慶苑)이라한다 경전전차과(京電電車課)에무려보면 정확한수자의 계산은아즉되지안엇스나 어제하로동안에전차와뻐스를 탄사람수는 연인수(延人數)로 삼십육만명 돈으로 일만팔천원이라하며 이러한 엄청난 수자는 명치사십일년전차가 서울시가를 다니기시작한 이래 처음이라고하니 놀나지안흘수업다 다음에 수난꼿 창경원에는 얼마나만흔 사람들이꼿에취하엿으며 인간전람회를 이루엇든가? 장원실(莊苑室)에 다

무려녹 주간(晝間)입장자가륙만삼백오십오명 야앵(夜櫻)에삼만륙백십이명 합계 구만륙천륙백십칠명이라고하며 이런수자는 명치사십이년 개원(開苑)한후 처음이라한다 야간을 따로하드라도 주간에 륙만이상의입장자는 처음이라하며 야간긔록으로는 하로전날밤인 이일의삼만팔천칠십사명이 대정십삼년 야앵시작이래의 최고긔록(最高記錄)이라고하며 어제밤열한시까지다-돌여든 보냇스나 창경원안에서 아부지를부르고 어머니를찾는아해들수가 낫에일백오십명밤에 오십여명이라고하니 이것도창덕궁경찰서(昌德宮警察署)생긴이래 처음이라고한다

이리하야 어제라는 하로는참으로 모든방면에잇서서 최고긔록(最高記錄日)이엇다고할수잇다



"順風에돗을달고" 【漢江所見】

運動競技

世界올림픽拳鬪代表 李奎煥送別會
明五日、明月館서

세계올림픽 권투대표 리규환(李奎煥)군의 송별회를 명오일오후육시부터 명월관에서 개최하기로 하엿다고한다(會費一圓五十錢)

全朝鮮自轉車大會
埼村李君萬米一着

경성자전거상조합회주최의 전조선자전차경주대회는 삼일오전구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출장선수오십삼명의 입장식이잇슨후 이천미돌부터 경기가개시되엿는데 당일의 일만미돌결승에는 기촌리약백군이 우승하엿다 각경기결승은 다음과갓다

【二千米少年決勝】1、林□□(京城)2、許□□(京城)3、元□□(京城)

【五千米□代決勝】1、□□(□□)2、金□□(□□)3、金□□(平壤)

【二千米四□決勝】1、朴□□(京城)2、□□□(京城)3、朴□□(京城)

【一千米女子決勝】1、安□□(平壤)2、金□□(京城)

【三千米三□決勝】1、田□□(沙□)2、□□□(京城)3、朴□□(京城)

【五千米京城一□決勝】1、李□白(京城)2、任□□(京城)3、金□□(京城)

【五千米二□決勝】1、金□□(京城)2、岸本(山口)3、尹□漢(□□)

【二千米老□決勝】1、李□□(京城)2、李□白(京城)3、金□責(京城)

【一萬米一□決勝】1、李□白(京城)2、金□□(□□)3、大久保(山口)

鐵道5 遞信4

경성실업야구연맹주최의 춘계리-그전 제이일의 제일회전은 삼일오후일시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철도선공으로 개시하야 철도오A대사로 철도가 승리하엿다

鐵道	210100000	4
遞信	120001100	5A

京電4A 殖銀3

경성실업야구연맹주최의 춘계리-그전 제이일의 제이회전은 삼일오후삼시오십오분부터 경성운동장에서 식은선공으로 개시하야 결국 사A대삼으로 경전이 승리하엿다

殖銀	010002000	3
京電	000400000	4A

中等野球聯盟戰

경성중등학교야구연맹주최의 춘계리-그전 제사일의 일회전은 삼일오후사시오십분부터 배재대중앙으로 개시하야 결국 사A대삼으로 배재가 승리하엿다

培材	002010000	3
中央	001000200	4A

立敎10A 帝大2

【東京電報】 동경대학야구 리-그전 제이회전은 삼일 오후일시삼십사분부터 신궁구장에서 입교선공으로 개시하엿는데 결국 십A대이로 입교대학이 승리하엿다

帝大	000001100	2
立敎	201010060	10A

明治8 法政7

【東京電報】 동경육대학야구 명치법정제이회전은 삼일오후이시사십오분부터 명치선공으로 개시하야 팔대칠로 명치가 승리하엿다

明治	101040100	8
法政	102012000	7

名古屋大東京合勝

【甲子園電報】 직업야구리-그 제오일은 삼일 갑자원구장에서 거행되엿는데 성적은 다음과갓다

名古屋	020130200	8
阪急	000330025	13
타이거스	000001600	14A
大東京	110010010	4

籠球聯盟委員

경성농구연맹주최의 제육회중등학교농구연맹전은 육일부터 개최하게되엿는데 임원은 다음과갓다

▲會長 呂運亨 ▲委員長 金□□

▲委員 ……

運動界集會

▲경성□□□에서는 금사일오후칠시부터 □□에서 임원회를 …한다

乘客과運轉手
十一名이死傷
靈岩、長興間道龍假橋上의
乘合自動車墜落의慘事

【長興電話】 삼일오후세시사십분경에 전남강진군 병영면도룡리(康津郡兵營面道龍里)구내의장흥(長興)령암(靈岩)간도로에가설(假設)한 도룡가교(道龍假橋)에서 전남자동차회사 승합자동차가추락하야 운전수와 승객등십명이 중경상을 하엿다 원인은 목하 조사중이라한다

泥醉暴行

▲사일밤시내 관수정(觀水町)록십일번지 안청거리에서 시내의선정(義善町)사십오번지 리춘진(李春辰)(三八)-假名-은 범정학교학생 조영환(趙永煥)(二)-假名-등네명의 부랑자(不良者)의 이 그앞을지나가는 시내적선정(積善町)일백록십사번지 송달용(宋達用)(三)의 부부에게 폭행을하다가 소관종로서원에게 붓잡혀가서 엄중설유를 바덧다

▲시내 내자정(內資町)십번지 로홍일(盧弘一)(二)-假名-은 삼일밤 술이 만취하야 길바닥에 쓰러저잇는것을 종로서원이 발견하고 보호하엿다

轢死·自殺
鐵道事故一束

련발하는 철도사고-지난이일에 전조선각선로에서 또 자살(自殺)-중상(重傷)등의 사건이 네건이나 발생되엿다

▲……이일오후 다섯시반경에 경부선 지천(枝川)신동(新洞)간을 대구발 김천행제이십사렬차가 진행중 대구부동운정(大邱府東雲町)이백구십삼번지 삼산정일(杉山正一)(二九)이가 뛰어들어 자살하려는것을 긔관사가 급히 정거하야 생명에는 관계가 업게 하엿다

▲……이일 오후여덟시경에 마산에서 만주에 잇는 면식(面識)이 잇는 …… 마산부 칭(馬山府)의 …… 뛰어올으랴다가 떠러저 압 바퀴에 피문은것을 발견하고꼿 조사한결과 한당의흥산(興上)한공차 함흥(咸興)간에서 사람을 상한것이 판명되엇는데 성명은 알수업다

▲……이일 오후려시이십분경 고원천(高原川)삼리(三人)이라한다 서면산놀리(西面山弄里)…… 되엿다는데 이사람은 창원군내에 살치만내고 생명만은 구조되엿다 압면상 여동어 저항하려는것을 ……

▲……이일오후여덟시경에 경부선부산발 경성행 렬차가 …… 면산에 만흔상처를 내엿다고한다

商工大運動
破記錄的盛況
各種目優勝者順位

경성 상공협회(京城商工協會)주최의 재십회 전경성상공련합대운동회는 오월첫공일인 작삼일오전아홉시부터 장충단공원운동장에서 십만관중환호리에 파기록적성황을 이루엇다함은 긔보한바와 갓거니와 당일의 각종경긔전적은 제일부만을 보도하엿고 제이부전적은 지면관계로 조간에 긔재케 되엿다 최종마을 장식한 우승경기의순위는 다음가 리 남자부에 김동현(金東鉉)군이 녀자부에 리영숙(李英淑)양이 각각 우승하엿다

男子部

1 金東鉉 (大昌洋服店)
2 沈相鎭 (三星堂絹綿)
3 鄭三雲 (天一藥房)
4 康德根 (大昌洋靴店)
5 吳明進 (韓毅善洋靴店)
6 朴昌植 (大昌洋靴店)

女子部

1 李英淑 (天一藥房)
2 片貞守 (李承□商店)
3 金今順 (玉川屋洗布)
4 朱三分 (天一藥房)

南門市場運動
優勝者順位

제삼회경성남대문시장상인련합대운동회 (京城南大門市場商人聯合大運動會)는 삼일오전아홉시부터 동대문밧식산은행운동장에서 성대히거행한바 이날석간마음까지의전적은 작보한바어니와 그보이후의전적은 다음과갓다

◇優勝種目順位

【千五百米決勝】一、方壽奉(李昌□商店) 二、尹一成(金□□商店) 三、金明根(金□□商店) 四、崔□□(□□商店) 五、徐毅善(朴□□商店)

【二千米自轉車決勝】一、金鐵永(□□商店) 二、金□□(金□□商店) 三、金在□(金□□商店) 四、崔□□(□□□) 五、申□□(□□□)

(以下□□□京城版에)

淑明校에奬學金
一萬圓寄附
(前校長令孫趙氏의特志)

고숙명여자고등보통학교 (淑明女高)교장 리정숙(李貞淑)여사의 친손되는 조중구(趙重九)씨는 요사이자기의선조모 일주기를마지하여 기념하는뜻으로 현금일만원을그학교장학금으로기증하엿다

그리하여 금번도처회로재학상아홉명의 중어생두명을 도합열한명에게 각각장학금을주엇는데 이로써 한지관계로마음것공부를못해가는 그학교빈약학생도들에게 큰도움의길이 열린것이라한다

定期刊行物漸減
比前年度廿三人減少

정긔간행물(定期刊行物)인가신청이 점점줄어젓다 매일신보의 조사에의하면 ……상 간행하는 정긔간행물로 제삼종우편물로서 인가를 받은것이 소화십년도말현재로 사백십일이던 전년도말의 인가수에 비교하면 이십삼이이 감하엿다 작년도말현재로 조선인은 칠십오인 일본내지인은 삼백이십일인 외국인은 십오인이다

沐浴湯盜賊
▲▲▲▲▲▲

삼일 본정서(本町署)에 경남마산부만정(馬山府萬町)오십번지 전파일범 리정순(李正淳)(二)이가 인치되여 취조를바고잇다는데 그는 사월십일경부터 경성부내목욕탕을 돌아다니며 지의손님들의 소지품인 금시계금반지등을 속아백원가량이나 김영준이가목욕하는사이에 그냥그의 의복까지훔치어가지고 다러난사실을 백하엿는데 이에우리들에게 참고될것은 목욕탕에서 분실된소지품은 주인에게맛기엿든지 안맛기엿든지 그것은막론하고 목욕탕주인은 손해배상책임이잇다는조문이상법(商法)에잇다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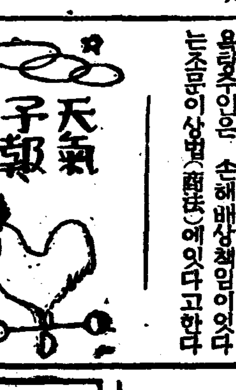
外地在留
朝鮮人約二百萬
滿洲에百萬、露領에廿萬
其他에七十萬以上

총독부외사과에서 최근에 조사한바에의하면 외국에가잇는조선인은 만주국내에 재주하는것을제외하고 이십일만사천사백삼십칠명이다 이것을 제주국별로보면 다음과갓다

	男	女	計
關東州			約二十萬人
中國	一、六□	一、□□	三、□□
北米	一、□□	□□	□、□□
南米	一□	□	□□
其他各國	二□	一	三□

이외에 만주국에가잇는 약백만명을합하고 도일본내지에 건너가잇는 칠십사만명의 조선인을 합하면 약이백만명이 조선외에 나가서 재류하는것을 알수잇다

조선인에대한하야는 정확한 통계수가업서 총독부에서 각령사관의 조사에의하야 개산(槪算)을 한것이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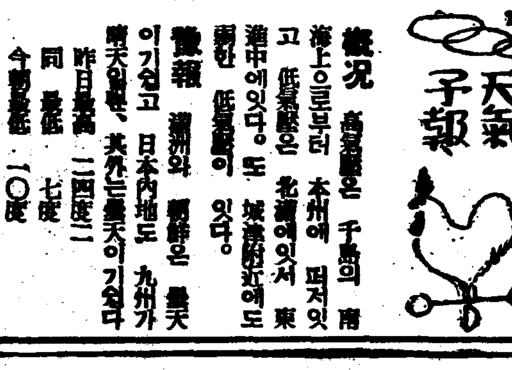


天氣予報

槪況 高氣壓은 千島의 南海上으로부터 本州에 떠저잇고 低氣壓은 北滿에잇서 東進中에잇다. 또 城津附近에도 弱한 低氣壓이 잇다.

豫報 滿洲와 朝鮮은 曇天이 기쉽고 日本內地도 九州가 曇天일뿐 其外는 晴天이 기쉽다

昨日最高 二四度二
同 最低 七度
今朝最低 一〇度
今日正午 一四度五



京城鍾路 電(本)五一三二

檢眼無料 眼學生

◎急告 世富順信宮商號를借用하야 奸利를取하는 奸商이 京城、平壤等地에有하오니 諸賢은注意하시옵소서

時計完全修理 京城鍾路二丁目 普信堂時計舖

カレンダー商界에元祖覇王인 大阪杉本商店鮮滿進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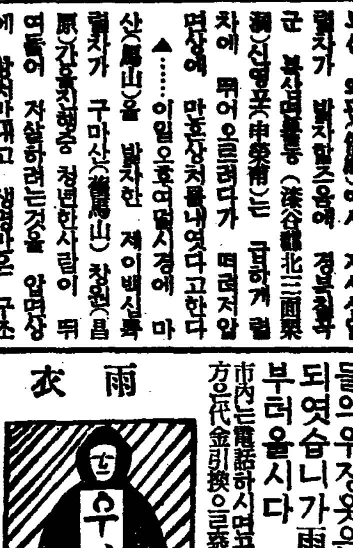
營業種目 カレンダー 圓扇、扇子等卸賣

滿鮮連鎖店大募集 (規定書進呈)

申込所 京城文店 京城府西小門町五四 電話光(3)二三五三 振替京城八四六五番
本店 大阪市北區菅原町八 電話北(五五)五〇〇六二一

朝鮮防水布製造所 (定價表進呈) 京城光熙門外新堂町 電話本②二〇二番 振替京城五三七八番

雨衣 雨衣雨幌シート防水布一切는如何한多量의注文에도應합니다 商店配達自轉車用及作業用各種學生男女用紳士用各種レンコート



여러분의사랑하는子女들의우장옷은다-준비되엿습니까 雨季는일로부러올시다 市內는電話하시면곳配達하옵고地方은代金引換으로發送합니다

두통과치통에 노-신 부통위두통과

百補丸 不老長壽 强精固春 美少年藥 一劑十圓 平和堂

旗 カメヤ旗店 京城黃金町五丁目 カタログ進呈 國旗 萬國旗 校旗 優勝旗 會旗 宣傳旗 幟幕

日活特作映畫 男のまごころ 江川宇禮雄、岡讓子主演 (來週九日封切大興行) 토-키 處女花嫁、이리랑第三篇、東道、모스크바의一夜、純白한處女地、愛光의 道、사랑과光明、추-로드의외 코스모포리스、명봉의愛國者、戀歌、사랑의彈丸

全鮮第一 映畫配給 團成社 電光 九九七

【五月四日封切】 女性은求한다 ◇外ニ 실화·春의 ◇日活特作映畫 아리랑이 빗 사랑의 …… 靑空을이불삼아

若草映畫劇場 電本二七〇四番

五月四日ヨリ大興行 …… 歡呼される 女性 …… 巖窟王 …… ごんぐり …… 兵衛 …… 東日大每ニュース

黃金町 優美館 電光二九五

其外短篇物上映 大同映畫社特作時代劇 白井戰太郎監督作品 大都映畫社特作時代劇 飛翔!自轉의進撃!!高原映畫의 宗壯한展開!! 荒武者三銃士 레일락고이氏次死의 主演 아리스다-르檢助演 코린비아特作全發聲… 로스에다-만氏監督作品 日本語全發聲版 로이드의爆彈將軍 (一名巨人征服) 巨星하로드로이드氏主演 高麗映畫社提供 ●夜間은七時四十分부터始映하나이다

京城撮影所新作全發聲版 春香傳 監督 李明牛氏 金蘇峰氏 主演 韓一松 文藝峰 ……朝鮮映畫의봉화를 …… 洪吉童傳 原作脚色 尹白南氏 監督 金蘇峰氏 主演 金遠鎭 …… 五月二日부터(晝夜四日間) 大衆料金 階上三十錢 階下二十錢均一 京城撮影所新作

麻浦桃花町 桃花劇場 電龍山三○番 全發聲 漫畫

新羅大史劇金剛作 半月城의密話 全二幕 文藝部作 슬데업는固執 全一幕 文藝部作 오늘 밤 全三幕

仁寺町 朝鮮劇場 電光三九六

울며웃든人生의애닯은노래그리운산 에가잇에 愛愁를주며 …… 비치나오게한다

大神聖堂의陣容

支社代理店特約店一覽

支社 全南光州府 神崎神聖堂支社

市內代理店

- 京城南大門通二丁目 新井藥房
- 本町二丁目 北島藥房
- 本町四丁目 木村藥房
- 鍾路三丁目 第一藥房
- 仁寺町 富仁藥房
- 阿峴 春山藥房
- 南大門通一丁目 富士屋藥房
- 黃金町四丁目 南海堂
- 鍾路二丁目 白楊堂

地方代理店

- 仁川府外里一九〇 仁川堂藥房
- 忠南天安邑內 徐光年
- 大邱府京町 大安堂藥房
- 咸北漁大津 姜鵬館
- 咸南永興郡宣興面 嚴龍得
- 咸北漁大津 閔泳鑑
- 慶南龜浦 朴基煥
- 咸北城津港旭町 壽榮堂藥房

特約店

- 京畿道仁川府外里 中和堂
- 同 永登浦驛前 淸一堂藥房
- 同 金浦邑 回生堂藥房
- 同 始興郡新東面平眠里 李鍾英
- 同 永登浦 裵振聲
- 同 龍仁郡南四面鳳鳴里 李相瓚
- 同 水原郡鄕南面發安市 金佑鉉
- 忠南大田邑大東町四九 朴玎均
- 同 洪城 李康世
- 同 成歡驛前安城商店 宋千逸
- 同 扶餘郡良化面草旺里 高文寬
- 同 公州邑本町一四七 崔鏞國
- 全南順天邑金谷里 金禎泰
- 全北金堤 趙東泰
- 同 井邑郡笠岩面大興里 陳善長
- 同 井邑郡七寶面白岩里 李廷鎬
- 同 茂朱郡赤裳面北倉 柳用極
- 同 益山 金永鑽
- 慶南京釜線勿禁驛前 大光藥舖
- 同 咸安郡安義面 崔再錫
- 同 河東邑 淸生堂藥房
- 同 晋州昭和町 大明堂 金三珠
- 同 同 第一藥舖
- 同 同 金成藥房
- 同 同 大黑洋堂
- 同 同 ツバメ洋藥房
- 同 馬山府 天和藥房 李鉉秀
- 同 馬山府 五行堂藥房
- 咸北城津港旭町 晋信堂藥房
- 咸南北靑郡下車面萬景市 姜完洙
- 咸北城津郡鶴南面禮洞 李柄秀
- 同 雄基港本町 迎春局
- 同 會寧邑大正通 世一堂藥房
- 東京深川區
- 大阪
- 京都 柔井燒
- 名古屋市南區 平和堂
- 島根縣美濃郡近見 片岡古吉
- 慶南釜山 韓明東
- 同 蔚山郡靑良面開谷里一六 孫秀榕
- 同 居昌邑 章榮振
- 慶南 蔚山 朴[illegible]館
- 同 南海 鄭生堂
- 同 泗川 金[illegible]圖
- 慶北軍威郡山城面三山洞二〇六 朴基憲
- 同 尙州郡邑外[illegible]里 權[illegible]入
- 同 善山邑本町 金亨燮
- 同 盈德郡丑山面景汀里 金春淑
- 同 善山邑內 新生堂藥房
- 同 佛國寺 金觀濟
- 同 淸道 鄭[illegible]迺
- 江原道金化郡邑 金化藥房
- 同 江陵 黃德源
- 同 原州郡原州面花月里一〇四 金鳳奎
- 同 金城驛前 文化商店
- 同 原州郡富論面興湖里 吳在根
- 同 洪川郡化村面君[illegible]里 申世均
- 黃海道載寧 鄭宗善
- 同 鷄林 金鷄商店
- 同 鳳山郡德在面赤城里間垈 李淳芳
- 同 海州 孔觀五
- 同 信川郡龍門面[illegible]里 權五契
- 同 延白郡[illegible]里 吳弼福
- 同 海州 林官浩
- 同 安岳邑 朴俊鎬
- 同 載寧郡 朴雲影
- 平南平壤大和町通 石川赤門堂
- 同 大同郡斧山面中二里 金館容
- 同 熙川驛前 全應朝
- 同 龍岡 鄭鳳益
- 同 同 李亨植
- 同 雲田驛前 春山藥房
- 平北碧潼 金泓官
- 同 淸浦線香山驛前 朴探瑋
- 同 龍岩浦農民共生組合 金興澤
- 同 宣川邑內川北洞 福山婦人商會
- 同 鐵山郡邑內 安東商店
- 同 江界郡公北面香河洞 李和松藥房
- 同 熙川郡邑上洞八五 韓用使
- 同 宣川郡川南洞 回春藥房
- 同 平北新義州 金石崇
- 同 車輦館 東亞藥房
- 同 定州 嵐和藥房
- 同 鐵山 安東商店
- 同 雲山 天壽堂
- 咸南新興邑內 錫安藥房
- 同 定平郡新上驛前 春起藥房
- 同 永興郡古寧面三峰里一四七 金允吉
- 同 豊山邑內市通 義信商店
- 同 長津郡郡內面上里梅田 姜基順
- 同 淸津郡 敎世藥房
- 同 新高山驛前 普惠藥房
- 咸北城津港旭町 壽榮堂藥房
- 間島龍井市大通路 永生堂藥房
- 咸北淸津府新岩洞 海東藥房
- 咸北朱乙驛前 北一堂藥房
- 同 明川邑明川洞 新盛商店
- 咸南北靑邑內里七六 金裕屹
- 同 北靑驛前 六五藥房
- 同 咸興府本町 三省堂藥房
- 同 元山府南村洞 金元輔藥房
- 同 元山府廣石洞 東明堂藥房
- 咸北上三峰驛前 金用根商店
- 江原道鐵原邑中里 協成堂藥房
- 咸北雄基上本町 十宇堂藥房
- 同 雄基邑本町 任壽堂藥房
- 同 南陽驛前 松山堂藥房
- 同 雄基邑本町三五七 信生堂藥房
- 同 雄基邑本町四一五 三信堂藥房
- 同 羅南邑初瀨町一一二 徐藝堂藥局
- 咸北城津邑旭町一四五 朴東龍藥房
- 同 城津邑旭町四一三 藝壽堂藥房
- 江原道平康郡福溪驛前 丸寅商會

支社代理店特約店特典大增募

全鮮各地에 支社、代理店、特約店을 大擴張하고 今般다시大特典으로 增募하오니 이조흔機會를 일치마시고 急先申込하시오 先着者로 決定합니다 詳細는 規定書를 請求하시오 無料로郵送함

特히 支社設置를 歡迎합니다 支社長이되시고 大成功하시기를 바랍니다

特約店以外에는 절대로 화리나 특전이 업습니다

꼿업는우리네집 봄조차온지단지

큰집에 큰정원만맛이아니다 "애기화단"맨드는법

봄이라야 우리네집에는 어듸 사면팔방을 도라보아도 나무 한주 꼿 한송이를 어더 볼수잇슴니까. 화초하기 사람의 봄인들 이이상 더하오리 까? 우리네들도 이제부터는 꼿나무를 심고화초밭을 맨들어서 좀더 윤기잇는 생활을 해나가도록힘써 봅시다. 부자집처를 처럼 굉장한 정원이사 엇기생심 바랄것이 아니겟지오마는 손바닥만한 땅에라도 꼿을 입 봄은 꼿이 어울리어 나쁜 것은 업스리다. 그러나 거귀도 합부로 아모거나 심어서는 꼴이신이가 사납습니다. 이왕지사 심을바에는 좀 아담하고 깨끗이 하야 보기 조흔편이 물론 조타할이 아닙니다.

조그만 화단(花壇)이나마 주인어른이면 그것을 맨드는데는 멧가지의 원칙이 잇습니다. 원칙이라고 별로 굉장한 것은 아니오나 참고삼아 말슴합니다.

(一)주인어른이면 주인어른 한사람의 취미만 외주하야서 자긔마음대로 해서는 재미업습니다. 가족본위로 보아가지고 안에서 필요한장소라든지 아희들의 이웃치는 장소가튼데도 의논것 피하려니와 무엇을 심고 어떠케 심는것도 의논것 하서야 합니다.

(二)화단이라고 하더고 꼿밧만 맨들어서는 우습습니다. 잔듸밧사이사이로 꼿치 피어야 지저분치도 안코 보기도 낫습니다.

(三)또 화단이라고 녀름한철만 꼿치 욱어저서는 심겁습니다. 겨울이외 세철만은 어느철에나 꼿치 피어잇게 되어야 참다운 화단이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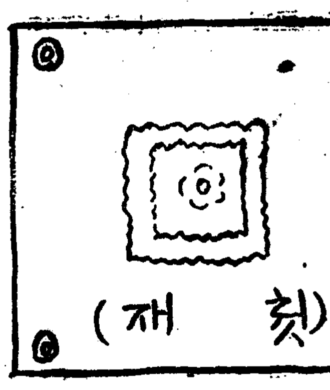
×

그러니까 위선 그 화초가 얼마나 큼것로 알고 어느때 피어 어느때 업서지는것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키와 그철을 딸아 또는 꼿빗도 보아가면서 잘 배합해 가지고 심어 노흘수 잇습니다.

(화초이름)	(철)	(키)
안래홍	녀름서가을	서너자
백일조	同	두어자
살비아	유월서초겨울	맨들
천일조	同	同
조안화	同	同
카테이나	同	同
칸 나	同	同
코키아	입사롱부터	두어자
아스타	구월서시월	서너자
그라지오라스	륙칠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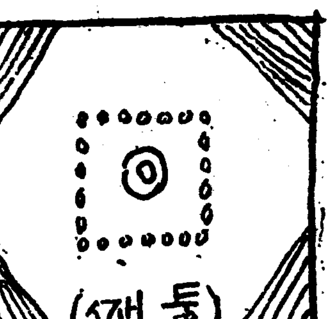
이상 멧가지는 언제나 봄에씨를 뿌리는 것이다. 지금쯤도 늣지 안습니다. 그런데 화단넓비를 한평쯤잡고 어듸 설계를 하야 보장 이런것 저런것을 다듬수는 업스니그중의 세만을 예로 듭니다.

×



(첫재) 그림한복판에 심은 칸나는 서너자나 노피 솟아 발간것이 곱고 그 가장살이에두룰레로 에워싼천일초는 꼿도오래도록 피거니와 자지 분홍 백색 여러빗치 잇서 섞거 심기좃습니다. 서주롱이의 코키아는 처음에 입사가 푸르다가 가을이 됨에 딸아 진홍으로 변합니다.

(둘재) 그림한복판에 심은 백일초는 서너자나 크는데 한자쯤부터 꼿치 부러서 초녀름에서 느진 가을까지 줄달아피며 그 가스로 둘러싼 아스타는 꼿빗도 여러가지요 모냥도 곱습니다.



童話 신선이된사람 ② 崔秉和

성선공은 이상하연으로 신선이되엿스므로 너무조와서 고향으로 도라왓습니다.

그는고향인 련무현(鍊武縣)에서 아조 보잘것업는 천한벼슬아치(官吏)엿습니다. 그까닭은그는 어렷슬때부터 몸만커서 열세살때에는 키가 열팔자나되엇습니다 그러나 성질은 어진어서 놀 입옷다물고 잇섯기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놀려주엇습니다.

그러나 결코 바보나못난이가 아니고 남이보지안는곳에서는 열심이 책을읽고 깁히연구를 하엿습니다. 그리하야 학식이만헛지만 그것을 나타내지안헛기때문에 벼슬을하엿서도 아조 천한벼슬밧게 못하엿습니다.

성선공의 성질이 이러함으로 신선이되여서 마을사람에게 자지만 결코 다른사람에게 자랑하거나 알리거나 하지안헛습니다.

어느날 장관(長官)의명령을받고 부윤(府尹)벼슬에 잇는 주근(周瑾)이라는 사람에게 갓섯습니다 이주근이라는사람은 사람됨됨 아라보는 성선공을 한번보자 다번에감탄하고 자기곳에 머물너잇게한다음 문관의주부(文學主簿)라는 놉흔벼슬을 식혓습니다 어느때 성선공은 관청에서 여러가지 세상이야기를 하고잇는데 뜰안나무에 참새가 만히 날러와앉저서 떠드는것을 듯고 혼자우수워서 웃고잇섯습니다. 그때한사람이

「무엇이 그러케 우수웁니까」

하고 무러보앗습니다. 그러니깐 성선공은

「종종수컷들이오, 내이야기를 드러보지요. 동네밧게서 쌀을실은수레가 뒤집어저서 쌀이길우에 흐러저잇스니 먹으러가자하고 저참새들이 이야이를 하고잇소.」하고 대답하엿습니다

사람들은 참새의말을 알아드를리가업다고하고 밋지안헛습니다. 그러하야 시험삼아 하인놈을보내으로 보내봣습니다. 얼마후에 하인이 도라와서 성선공의말과가와 똑가티말하므로 여러사람들은깜작놀낫습니다.

그런데 이러한일이잇슨뒤부터 성선공의 일흠은 갑작이 자ㅣ며저서 어느사람은 도리혀 성선공을비웃고 주근이가 요술쟁이나 점쟁이가를 사람을 놉흔벼슬을 식혓다고 욕을하엿습니다.

그러나 주근이는 그런욕설은 드른체만체 하엿습니다.

어느해 정월초하루날 주근이는 여러벼슬아치를 모하노코 잔치를하엿습니다. 술잔이 한번 빙그르도라서 성선공의 차례로 왓슬때 성선공은 술을드리마시드니 그술을 동남방을향하야뿜엇습니다. 여러사람들은 성선공이게 실례가아니냐하고 꾸지젓습니다.

「웨, 그런일을하시오」하고 그중에도성질이 팔팔한사람이 엄중하게꾸지저지고 무릿습니다.

「지금련무현에 불이낫습으로 즉시 술을뿜어서 불을 끄느라고 그랫소」

성선공은 태연히 대답하엿습니다.

이말을드른 여러사람은 따한층 노하엿습니다. 자기의잘못을 감추느라고 얼토당토안혼거짓말을 한다는것은 염치업는사람이라고 생각하엿는까닭이엿습니다.

그러나 그이튼날이되자 여러사람은 성선공에대해서 노한것을 뉘우치지 안홀수 업게되엿습니다.

그이튼날 련무현의정관인 장제(張濟)에게로부터 급한편지가 온 까닭이엿습니다. 그편지에는 이러케씨여잇섯습니다.

「……하루날잔치에 여러사람과 술을마시고잇스려니간 서북근방에서 갑작이불이일어나서 백성들의집과 관청집도 다타버리나보다 생각하엿는데 지금까지를 볼쪽에서 세찬비가 갑작이 이러나며 큰비가온까닭으로 불을끄게되엇습니다. 그런데한가지 이상한것은 그비가 술냄새가 낫것이엇습니다.」

이러한일이 잇슨뒤부터 선선공의일흠은 더놉하지고 또 성선공에게 놉흔벼슬을주근도여러사람에게 칭찬을밧게 되엿습니다. (中國童話)

현정십오만마일 세계려행하든개

미국「샌·디에고」지에서 발표개최중인 태평양국제박람회에는 미국채신성이 바제한개한마리를 출품햇는데 이것이 구경꾼의흥미를 평장히끌고잇다합니다

이개의래력을말한다면 서력일천팔백구년 「알바니-」에살든 철도우편부한사람이 자기가귀엽게기르든개(일흠은「오-니」)에게 가지우편국으로가는 편지를주어 세계려행을 식혓다합니다 이려류유명한 우편려행한개는 그당시 일본에도 들려가엿이잇다하는데 가는족족여러곳우편국에서받는 메달의수효는 자그만치 일천열입끔개나되어 온몸에 그것을찬다면 옛날갑옷을 뒤집어쓴것처럼 되얏것입니다. 그개가 일생동안 세계려행한리수를 계산해보면 십사만삼천칠「마일」, 어듸서 어듸까지만한지 얼른생각이나지를안습니다.

이거참별유행! 버섯으로목거리

《불란서파리의「봄소식」》

철이 바뀔적마다 「파리」에서는 언제나 참 신긔한 생각못한 엉뚱한 소재의 장신구가 되어나오는데 이것은 반드시 류행의 작난이라기보다 류행게에 한 이야기꺼리를 맨드러 그것으로서 활긔를 띄우게하는 한 방면으로 보아서도 필요한것처럼되어잇습니다.

◇

봄아닙니까 모양내는사람, 취미만높은사람들이 그대로 어물어물 보낼까닭이업습니다 나는 이런것을하겟다 아니 나는 이런것을 해봣스면한다하는판에 뛰어나온것이 잇스니 세상 에서도 보기들은 아니전에 구경도못한

버섯목도리가 생겨낫습니다 버섯을모르시겟서요 땅속에서 소사나는 머리가 우산처럼 벌려지는 버섯말입니다

◇

버섯의 커다라케버려진 머리를 말려서 단단하게해가지고그것을 반짝반짝하게하고 약간색칠을한다음 실에꿰어 목에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따위것을 세상에내어노키는 「파리」의 「룩후」화 「페-퀠」이란유명한 두상점이가 때문에「파리-」희모든신문은 신기한일이라하야 류행란에다 소개를했다합니다 그럼으로 이 목거리가 팔리건

◇

아팔리건간에 착안해낸 이두상점은 성공했다고 볼수잇습니다.

그런데 원겁요. 이것이 아취가 풍부하다고해서 검은빗소와 하는 아가씨들이 나두나두하고 목에걸기 시작했다합니다 여러분 어떳습니까 송이버섯이나 참나무버섯으로 한번 목거리를 해보실용기가 게십니까.

幼稚園巡禮記 ⑫

往十里幼稚園

왕십리유치원에서 건너다보이는 적은집이 바로 왕십리유치원입니다 깨끗지 못한 좁은 보육실에 원아는 열다섯명입니다

「이러케 루추하고 먼곳을 차저주어서 죄송스럽습니다」 강성옥선생님의 겸손하신말슴에 진심으로 머리가 숙으러젓습니다 엽집이나 압집이나 다ㅣ 쓸어질듯 너머질듯한 초가집입니다

여기의 원아들은 그집들의 애기들이가 봐요 그러나 아희들은 똑가리 천진스럽고 귀엽습니다 「선생님사진을 갑배헌주세요」 그들은 긔자의 치마자락에 매여달녀서 이러케 졸으고 잇습니다

사진박히고난뒤에 다시 유히시간을 계속합니다 내손에 공잡어네 마루우에 굴릴때 원안에 들면은 손뼉을 쳐주네 원을 그리고 그안에 공을굴려넷는 유희를 합니다 노래와 가리 원안에공이들면 그들은 자미스럽다고 적은손들을짝짝처줍니다

養明幼稚園

「양명유치원이 어듸냐」고 물으면서 꼬불꼬불한길을 작고마가습니다 유치원은 왕십리보통학교 마당한편에 색상자처럼 고웁게들 안젓엇습니다 아희들은 첫시간 쉬는시간이란는 ―울마치고 쉬는시간― 유희시간테 마당에서 노는아희 보육실에서 노는아희 어느아희들이나 다씩씩하고 활발합니다 한 볼면에 엉개를 추니 노는고 활기를 추지못하는 어른들의 팔을 새삼스럽게 미워했습니다 원안는 사신병이고 보모선생님은 두분이십니다 「이것봐요 다들 이리와서서, 사진을 박힙시다」 한마듸말슴으로 아희들은 노롬터를 버리고 선생님앞에 비탕이떼처럼 모여듭니다 「선생님 어떠케 서요」 하는 소리가 이야하 저야하 입에서 재걸거리는중에 사진을 띡어버립니다 그들은 한결갓치 웃고말겟지요.

(사진-상은 왕십리, 하는양명)

비누까시안짜면 여드름된다

늘살결을정히하고 변비업도록힘쓸일

여드름이생기는것은 여러가지 내적원인, 선천적소인예의한것이기때문에 그치료가 보매가 간단한것가튼나 매우곤난하다고볼수잇습니다 치료해서 나은것가터도 얼시적인경우가되고마는데 그러나 적당한방법으로 놀수의만하면 의과학의효과를어들수잇습니다 말하자면 피부를 늘정결히하고 변비가 안되도록 음식물을가려먹고 적당한운동하는것입니다 이방법은 비타지료법만이아니라 예방하는데도 매우조흡니다

◇

그다음 우리네가부르는녹비누가시라는것 이것을「코메도-」라고하는데 여드름의 알이라고도볼수잇습니다 이「코메도-」라는것은 피하에 잇는 피지선(皮脂腺)으로부터 피지(皮脂)즉기름이 배설되는통하야 피부면으로나올때 너무만혼피지가 피부면에 부러잇는 잘균과 더러운것과 한데뭉처저서 배설관을 막기때문에 생기는것입니다

여러분도 경험하섯겟습니다만 얼굴을석경에비처 자서히살펴보면 간혹가다 까못까못한것이 살에백여잇슴니다 이것을꼭짜면 살속에서 쌀알가튼것이 쏙나옵니다 이것이「코메도-」녹 비누까시인데 이것을 짜내지안코 그대로두면 살을곪게하는화롱진(化膿菌)이 붓든다든지 또는 변비로인해서 흡수된 장내(腸內)의독소가 피부화농과동시에 피부배설관으로도나와 여기에 여러가지자극이 더하지므로해서 피부면에 염증을이르키고 그내용물은 끔마이제는 정작 여드름이 되고마는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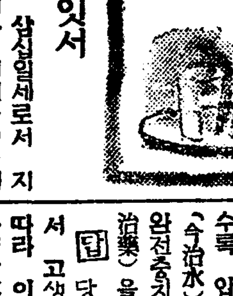
그럼으로 여드름은 비누까시적에 짜버리고 그뒤에「큐멘필드씨액(氏液)」이라하야나 또는 냄새조흔「하카솔」이란 약을 발르면 훌륭히 그자리는 여드름예방이 되고맙니다

◇

물론 여드름이 생겻슬때는 늘위장에 탈이업도록 주의하고 또 월경불순의 원인은 먼저의 방법으로 별로 효과가업을경우에 「호르몬」요법을 함께하면 조흡니다그리고 이상의 방법에보수해서 자외선(紫外線)을 쪼이기도합니다 그러나 이러한방법은 아모에게나 조흔것이 아니고 아모에게나 조타는 것은 먼저말슴한바와 가리 피부를 정결히하고 뒤룰잘 보고 비누까시를 짜내고하는것들입니다

겸해서 젊은 부인들께 말슴할것은 두서너번써보아서 자기살에맛는 화장수를 늘쓰는것이 조흡니다 동무들의 말만듯는다든지 땅고에본 새화장수가튼것을자조 가라쓰는것은 도리혀피부염이나여드름을 맨드는것이나 다름업게됩니다

충치가잇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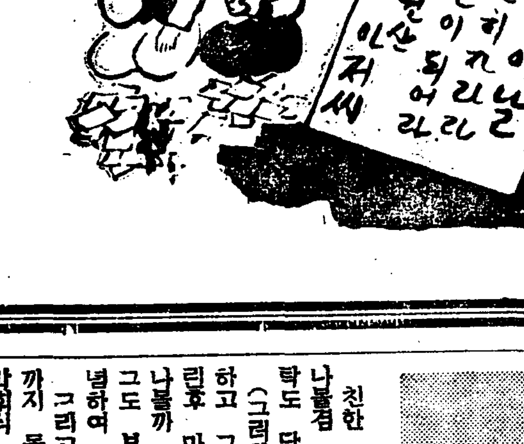
問 본인은 삼십일세로서 지금병중에잇습니다 이런불행중에도 또충치로서 만흔고통을받사오니 충치에대한 처방을하교하야주시옵 지금충치가들어잇는데는 이에구녕이완연합니다 날이갈수록 압흔중에잇습니다 금치수(金治水)를쓰는중이오나 가정에 완전충치료치약(家庭完全虫齒退治藥)을하교하심을복망

答 당신의말슴대로 충치가잇서 고생을한다하오나 그정도에 따라 이는비록구녕이뚤녀잇서도 아니압흔수도잇고 그것해이가보기에는 험정하여도 압흔때가만호니만치 자세한진단을부치여서 전문의사에게 치료를맛는것이조흘뜻하오 전신병으로 몸시쇠약하야 기동을못할지경이거든 의사에게말하고 왕진을청하든가 혹은진통제을 갓다써보시요 충치로 이에구녕이생긴뒤에는 별로 가정상비약이라고할만한것이 아직발견되지못하엿습니다 (세부란스病院齒科 金顯淳)

우리차지

어제가 『어린이날』이라 수봉이한테와 옥순이한테는 시골게신 어른들과 동모들이 엽서 편지를 만히햇습니다. 모두다 『어린이날』을 축하한다는 인사와 몸 튼튼히 자라훌륭한 사람되라는 고마운 말뿐이엇습니다.

(글쓴사람 림정희)



봄의 얼골화장

조흔봄 반가운봄 웃고춤추는봄을상징(象徵)하는미안은 역시자연의「렙포놀」딸아「스텝」을 밟것입니다、꼿치피는대로 얼골도피여나는듯 모든것을 밧겨마지하는듯 아니보랴야아니볼수업도록 「차-밍한비솜발(發)하지아니하면 안됩니다 안색(顏色)이니신색(神色)이니하는 이비치야말로 미안의 생명전체입니다 예로부터미인은서긔(瑞氣)를한다고 합니다 우리는파채잇는 서긔를하는 환히빗치는얼골을 갓고십흠니다 그러면언제든지 젊은이의 미(美)를보존할것입니다 륙독희홍(柳綠花紅-)봄은언제든지 봄이아니지만 우리는 이미의파지(把持)로 언제든지 젊은긔분을 가지고십지아니하십닛가. 봄의미안에는 넘우지른 화장은 조치안습니다. 될수잇는대로 우렬한듯만듯한 화장술이 적합합니다 근일에 「베니」를 만히쓰시는모양이나 「베니」가 넘우지르면천하야보이니 아모조록 엷게쓰십시오. 또얼골이검은이는 별로제로하고 대개는 약간분홍빗을띄화장이 봄에는 적당하고 밤에는 낫보다지른빗을 쓰시도록하십시요

(모-델 周性淑)
(美容師 朴英姬)

明暗 (十)

玄卿駿 作
金□□ 畫

뒤재언덕에서 경숙이와 갈나진이후 관규는 몃출동안은 도시 마음을 것잡을수가 업섯다 어떠던 보물을 일흔것가튼허수한생각.

뒤생네는 가슴속을 못견듸것끔 어즈러운 환영이 파고들때면 그는 그만 모-든것을 집어치우고 경숙이게로 달녀가고십흔 정열의충동에 밤새도록고민하는것이엇다.

그러나 몃출뒤에 기다리던편지가 왓슬때에는 그의마음은다시금 차침하게 갈안젓다.

그는 치칙하게 떠날 임찌를 결정하고 준비를 하여나갓다.

준비야 별로 할것업시 입엇던 그대로 떠나면 그뿐이지만 려비가 문제엿다.

그래서 백방으로 생각하다가 그는 웁에잇는 제지공장에 근무하는 동무와 누의동생에게로 차저갈 생각을 하여보앗다.

그리가서 부탁하면 려비야 물넘어시 되겟지.

친한 동무도 오래간만에 맛나볼겸 그리고 누의동생의 부탁도 단단히 하여둘겸.

(그러타. 그러로 가자)

하고 그는 속으로 결정하여버린후 마지막으로 경숙이나 맛나볼까 하다가 다시 생각하니 그도 부질업슨일갓하 그만 단념하여 버렷다.

그리고는 산이며 들이며 이때까지 돌아대기던 곳을 죄다 한밧퀴식 돌앗다.

마치 마지막으로 하직의 인사나마 고하는것처럼……

마지막에 실리나 되는 어머니의 산소에 차저갓슬때는 참으로 감개가 무량하엿다.

집에 돌아와서 밤이 되지를 고대햇습니다 집안식구들의 시선은 어쩐일인지 자긔에게만 쏠니는것 가탓다.

버개도 베지안코 그대로 방바닥에 네활개를 쭉-펴고 큰대짜로 들어누우니 머리속에는 지난날의 긔억이 주마등가티빙글빙글 돌아갓다.

그러다가 오늘 떠저서는 거기에는 정희의 후렴이……희비석까지 세워다는 동구스럼한무덤이 오것이 나라나서 그의가슴속을 호긔하게 하여주엇다.

기다리던 밤이 왓다.

저녁후 이슥하여 슬그머-니 집안식구들이 몰우게 뒤들으로 빠저서 큰길에 나서니 어젯밤인지 마음의 한귀퉁이가 허수하여지는것가타엿다

그는 쓸쓸한 우슴을 띄우고 다시한번집을 돌아다보고 밤비밤비 동구압까지 나왓다.

바로그때 동뒤에서

『관규씨!』

하고 나직히 그러나 힘을 주어서 불으며 달녀오는 녀자가 잇섯다.

『앗』

관규는 깜짝 놀나 걸엄 나무그늘밋헤 벗겨섯다.

달녀온 녀자는 경숙이엿다.

『아, 경숙씨!』

관규는 넘어시 뛰여나와 그의손목을 붓드러잡엇다.

경숙이는 가슴이 뿟는것을 겨우 진정식히고 원망스러운듯이 빤-히 처다보앗다.

『단 한마듸래두 말슴이 잇구 가실줄로 알엇서요』

관규는 대답이 업섯다.

『용서하시우. 그런데 어떠케 알구?』

『웨 몰나요? 밤낫 떠나시는것만 살폇는데』

관규는 가슴속이 뭉클하엿다 둘은 오래동안 말을 못하고 서로 얼골만 마주보고 잇섯다 어듸까지 청승맛게 우는 부엉이소리가들녀왓다.

『관규씨!』

하고 경숙이는 떨니는 소리로 불넛다.

『이러케 갈나지면 언제 다시 한번 맛날때가 잇슬까요?』

『그야 인연만 잇다면……』

『그보다도 저의 마음만 썩지 안는다면 반다시 맛날때가 잇겟지요』

하고 경숙이는 살그머니 눈을감엇다.

관규는 다시금 힘을주어 그의손목을 꼭 쥐여주엇다.

『어건 약소하지만 려비에나보태주세요』

하고 경숙이는 무엇을 너헛는지 두터운 봉투한장을 살그머니 관규의 주머니에 너허주엇다.

관규는 아-모말도 못하고경숙의얼골만 빤-히 드려다 보앗다.

어느덧 동쪽산마루에는 이즈러진 스무날달이 기웃이 치밀어서 지쳐된 갈길을 재촉하는듯, 장사가리 구비진길을 휜-히 빗최주엇다. (곳)

―四月二十三日―

偶感草(上) 不知愁

鷺山

근념은 모르는 사람은 어떠 아희와 미친사람과 外國사람인가한다。하늘이 내려준 봄을 斯斯이 세상의 사람이거만 斯斯못하다。

나는 오늘아츰 이 세상의 사람을 가른

時間 에 가른場所에서보왓다。

이른아츰 京城驛에는 幾千名 어린學生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엇다。晴明한 五月의하로를 卜하야 學校마다 近郊의 名勝을로 遠足을 가는모양이다。

어쩌면 저렇게 깃버들할까。저이들에게는 煩惱도 貧寒도 잇슬것이오 苦痛도 잇슬것이다。그러나 오늘아츰 이五月의 따스한 太陽아래 서서는 가난도 업고 煩悶도 업시 저들끼리 어린아히들에게 우러즐거움과 우슴이 잇슬뿐이다。

나는 잠깐동안 한모퉁이에서 서 근심모르는 어린아히들의 世界를 바라보고잇섯다。그래는中에 어디서 나타낫는지, 어이한 狂人이 하나 群衆사이를 지나간다。群衆에서 拍手소리가 난다。우숨소리가 터진다。그러나 그것은 저 근심모르는 아히들의

拍手 소리요 우슴소리다 미친사람도 저들과 게 손벽을 치며 웃는것이다。

그러자 다른한거름로 自動車 三四臺가 와서닷는다。車門이열리더니、外國男女들이 나리며 어깨를겻고 驛안으로 들어간다。무슨이야기지 재재거리며 좋아하리면서 거이 踊躍스럽도록 웃음에 들어가는것이다。

어제 봄하지 그네들은 愉快한 生活에 웃고즐고 깃붐과우슴이 남은못하다。分明히 그네들은 근심을 알지못하는 사람들것이다。

나는 이가치 오늘아츰 가튼 時間에 가튼場所에서 근심모르는 세가지의 사람을 봇다。

時間이 지나 나갓슴이라 봄날을 마치고 쫏아오다가 살고 거리 公園의 時間이 남아잇슴을 물리서 南山우으로 올라갓다。風景한 平穩과 아름이다。오[illegible]

奔走 가 아직 시작되기 前나는 이 고요한 時間을 어느것이 어떠하거나 幸福스러웁지 몰랏다。

午前八時 서울의 南山을바라도보고 十萬戶 大京城을 굽어도보고、바람가치 지나가는의 歷史를생각도하고、갑짝모를 오늘의 生活을 여어때에에、어느덧 奔외의이 活動하기 시작하는 내가슴을 나도몰래 두손으로 움켜쥐지 안흘수가 업는것이다。

여기도 봄은와서 꽃이 피는강 여기도 봄은와서 풀이푸른강 여기도 五月은 차자오는가

따스한 바람이 불고、仁慈한 太陽이 또는가。이저버리지안코 바자버리지안코 봄은 [illegible] 하야 이땅으로도 차저오는가。흙에도 나비도기에 밧은五月을 어둠과 憂愁와 孤苦와 饑餓와 鬪爭과 病苦와업는 哀愁와 生活을 풀고 [illegible] 光明한

五月 와 및 날고 지나보내 나와 및 날과가려 근심하는 저모든 괴로운사람들을 爲하야 나는 잠깐동안 옛날을 외눈물을 쥐어먹저 五月의아츰 따스한 朝덧속에 떼로며든것이다。

슬프다! 근심을 모르는 사람은 어린아이와 미친사람과 外國사람인가한다。하늘이 내려준 봄은 이세상의 사람에게만 許與된것하다。(上了)

文藝時評

通俗味와 藝術的薰香 ②

嚴興燮

民村 李箕永氏의『奇談』(朝光五月號)을 먼저 읽어보자。

—富貴한家庭이 하나잇다 영호라는 十四五歲의 아들과 이제 八九세밧게안된 영수와 네살된 영애를 남겨노코 애비되는 사나희는

生 活에 김들니면 어듸로엔지 다라나버리고 오작 그들의 어머니가 生活을지탱해나간다。영호는 小學生이다 영수는 今年에 普通學校에 新入學願書를 냇다。

이 小說은 영수가 普通學校에 新入學 되는데서부터 始作된다 [illegible] 어려운 普通學校 入學에 無難이— 말하자면 貧窮한家庭의 아이로서는 너무도 天佑神助라고 할만큼 入學이 되엿다。實로긔부기限업는일이다。

그러나 것부기보다는 차라리入學되지안엇더니만 갓지못한 不安과 걱정이 그들의 家庭을 휩쓰럿다。그것은 學用品과 敎科書 衣服、신발등을 어더케해서 당하나 하는 經濟的不安、그보다도 영수가 가진 [illegible]

[illegible]

에서 도라와서는休暇장사를한다 —아우의『런드셀』을사주기爲해서 이러케 되기때문에 復習할時間이업서 영호는 조금도學校成績이 漸漸低下해감으로擔任先生이 불러다 質問한다、영호의前後事情 告白을 듣는

擔 任은 同情에넘치어 一金三圓을 내어주며 休暇장사를 크만두라고 勸했스나영수는밧지안는다。이튼날敎員은『런드셀』을 하나사다가 가만히 영호에게 준다。영호는 그것을 바터 아우에게 준다。영수는 책보를 내버리고『런드셀』을 지고다니며 날마다 놀러지내든 아헤들압헤서도 威風堂堂하야 힘껏 뽑내고 단이다—

이것이 이『奇談』의 대강이야기다。영수가『런드셀』을 안사준다고 밟아붓치든지 라거나 그어머니가 발아하는 場面의 描寫에 우리는 조금도 흥나이 업는 實感을 늣기며 영호가 아우 영수를 달내려고『런드셀』을 제가 사준다고는 壯談을 해노코 사줄수업서 苦憫하든 남어지에 百貨店을 지내치며 훔치려고까지 決心한 心理發展過程은 이老作家가 아니고는 차저보기 힘드는 自然스러웁고 能熟한 筆致라고 볼수잇다

그런데 영호가 —『런드셀』을 사주기爲하야

學 校에갓다와서 남는時間을 利用하야 休暇장사를 自然的으로 한다는것은 一國의 美談的인 잇슬지한 實實이면서도 實相은 別로드물實實이 아닐수업다。

여긔에서 作家의 實際는 어떤 새로운人間의타입을 發見한것이나아닌가? 늣기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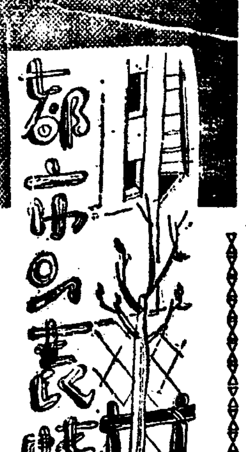
그런만이니라 영호가 休暇장사를 하기때문에 學校에서 도라와 復習할時間이 업슴으로 優秀하든 成績이 漸漸低下해가게되고 거긔따라 擔任敎員이 물너다가 여러가지의 實問을 하게되고 난날에야 영호의 人情美的特殊한 行動에 感激되어 나중에自己의 私財를드려『런드셀』을사다가 영호에게 주는데까지는 實로 感激에넘치는 一篇의 산그림이다。

그것은 이老作家가 이作品의 世界를 擴作敎前의 感激에넘친 人情美의 發露— 새로운人間의 타입을 探索하려는데에 무엇기때문이라할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作品을 읽고 저윽히 섭섭함을 禁치못하는것은 이런作品일수록 잇서야할藝術的芳香이 너무도 이

作 品에서 열버지잇지나아니가한다。말하자면이作品은 한篇의 人情美談的인通俗小說이나 아닌가한다。能熟한—레알탐—유모려스한筆致의 主人公이 老作家의態術作品을 對해나려오든 讀者로서는 자못섭섭할것갓다。

우리는 氏가 藝術小說의境地에서 或은通俗的인 大衆小說의境地로 새로운길을 開拓하려하 [illegible] 지나안는것게의 不安을 늣기여 마지안는다。



『로-마』의 어느詩人이말하기를 都市는 바다와 가치 제秘密을남에게 말하지안는다고하엿다。

그럼으로 人間은 自然을 征服햇다고 떠드는판에 저도모르게 모다 都市의 擒虜가되고말엇다。

이제 우리는 秘密에찬인 都市의 表情을 硏究함으로서 그가슴에 소용도리치는 온갓音響과 깃봄과 설냄과를 알어볼수잇슬가?

現代의 都市는 直線의 亂舞이다。한엇시넓은 蒼空에 떼터난 線과 線과의 平行 그리고 線과 線과의 疊疊 이것은 벌서『니-체-』의 말과가티『噫劇的키스페리』로 表現될것이아니고 차라리 奔放한『亂舞』이다。

그러나 때로 이거리에 가느다란 밤 비가 네리기만하면 제법 청잔어보히든 저 街燈도 아득한 哀愁에 눈이 흐려질녀가 잇다고한다

—曲 水—

問題의時代性 (四)

—人間探求의現代的意義—

金午星

우리는 어 두가지 人間槪念 即 思惟하는 人間과 個性으로의 人間이 自然科學的 技術과 計量으로서 自己의 實의 生産을 獲得하는 近代社會 市民層의 人間타입은 두말할것도 업다。

十七世紀以來 英國의 殖民地擴張 海外貿易의 發展等의 物質的條件의 兀進은

人間槪念이 經濟的 槪念으로 轉化되어 國民經濟學의 成立을 보여주게되엿스며 佛蘭西의 殖民地獲得熱과 農民壓迫 商工業의 保護等으로 因한 機械工業의 發展은 個性의 機能을 機械的物質에 埋沒시키여 機械的唯物論의 盛行을 보혀주어 오래동안 人本主義의 沈滯를 가저오게하엿다。

이러한 啓蒙的思潮의 뒤에 나타나서『思惟하는 人間』과『個性으로의 人間』을 結合하야 人間의 自由를 完成시킨것이 칸트이다。칸트에 依하야 人間은 理論方面에 잇서는 客觀을 構成하며 認識하는 主體로서 實踐方面에 잇서는 온갓 自然的인것을 手段으로하는 目的的인 主體로서 自由行爲의 主體로서 登場하게되엿다。이리하야 人本主義는 칸트에 잇어러 近代的人間型의 完成을 보혀주게 된것이다。

그러나 人間體系는 完成되자맛자 他者에 依하야 否定되지안흘수 업는 運命을 갖게되것이다。近代에 잇서 自然槪念의 發見 人間精神의 追求는 마츰내 自然科學과

精神科學의 獨立的體系를 完成시키게 되엿스나 一方으로 自然科學은 存在의 空間의 極點에까지 他一方에서 精神科學은 時間의 極點에까지 追求하게되며 人間槪念은 이兩者中 어느것에 埋沒되지 안흘수 업게되것이다。그리하야 人間은 人間槪念으로서보담 흔히 精神的槪念으로서 흔은 自然的 槪念으로서 取扱되게 되것이다。그것은 무엇보담 헤-겔과 피-헤에서 차저볼수잇는 現象이다。헤-겔哲學에 잇서서 人間槪念은 何等의 價値도 갓지못한다。오직 各個人을 攝理하는 世界理性만이 眞理를 構成하는것이다、世界精神의 自己發展"이것이 헤-겔哲學의 核心이것이다。피-헤에 잇서도 人間은 人間아닌것 즉 自然의槪念으로서 取扱되것이다。메퓌스트메레스 其他의 惡魔의 障害와 싸우면서 事業에 邁進하는 파우스트는 自然史的 運命의 압페서 한개의 한물레드的 悲劇으로서 最後를 마치는 피-헤의

自然主義的 世界觀에서 나타나지안는것이다。『近代가 人間의 解放과 獨立을 자랑하야 生産力의 偉大한힘을 보혀주려고 할때는 벌서 自己의 飽和와 矛盾을嘆息하게 되엿든것이다』그것은 마치 個性의 機能을 마욋것 發揮하는 近代의 自由競爭은 마츰내 獨占現象을 나타내여 恐慌 戰爭等의 經濟的諸關係가 個性의 機能을 埋沒시키고 잇슴과 恰似한 現象인것이다。그리하야 近代社會에 잇어 人間의 生殺의 權利는 人間自身에 잇지안코 人間以外에 잇게되엿스니 헤-겔의『精神』과 피-헤의『自然』을 우리가『社會』란 槪念으로 읽게되다면 그들은 社會的條件에 依한 人間性의 埋沒을 如實히 反映한것이 되는것이다。여긔에서 발작크의『人間喜劇』이 誕生하게되던것이니 人間이 지여노흔 社會的條件에 人間스스로가 疎外된다는것은 한개의 人間喜劇이아닐수 업섯든것이다 발작크는自己의 超人的精力과 想像力으로서 이人間喜劇의 諸像을

描出하려고 하엿다 그러나 그도 結局은 社會的制約을 超越할수는 업섯든것이니 그는 人間을 人間으로서 그리지안코 人間을 社會로서 그리엿든것이다 이리하야 人間槪念이 巨大(?)한 近代文化의 壓力에 依하야 埋沒되된에 來個이죽은 두가지方面에서 極히 消極的인 形態로서 나타낫다。하나는 十八世紀以來의 受動的인 浪漫主義로서 달은하나는 十九世紀末의 實用主義로서이엿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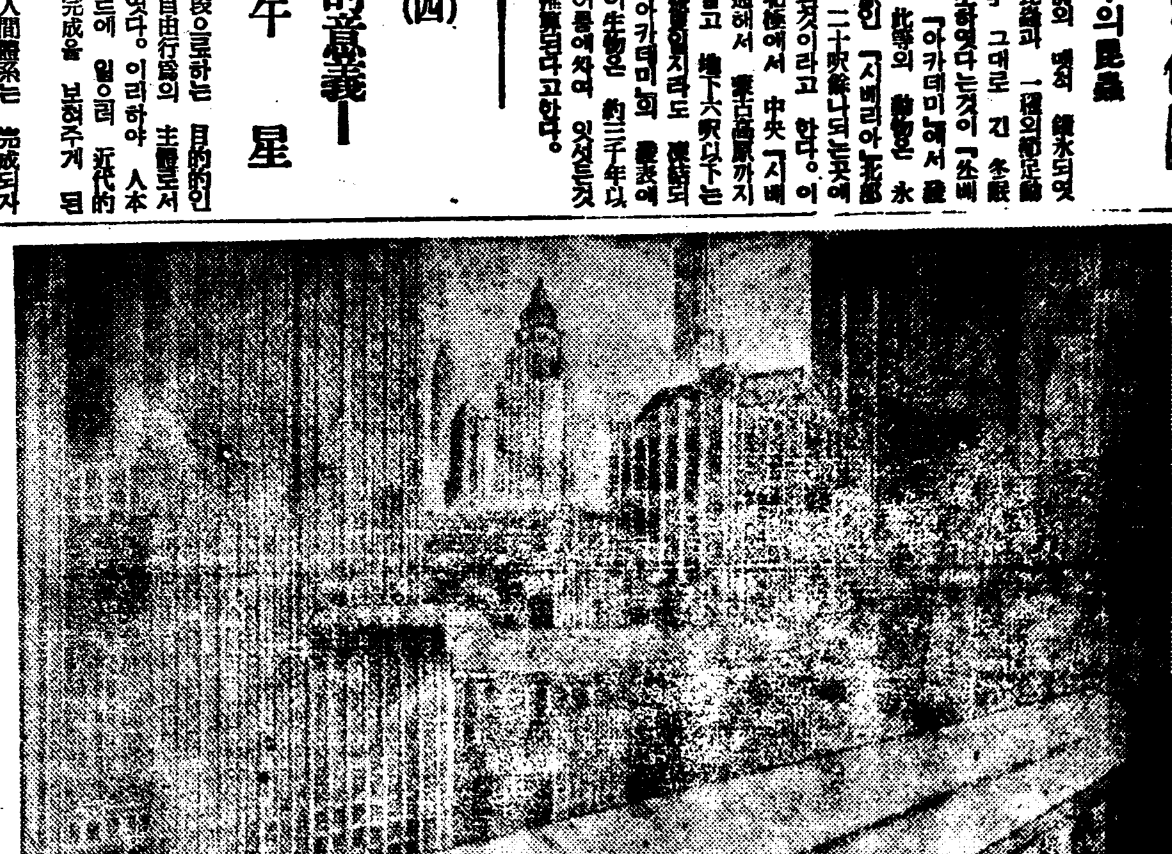
海外短信

三千年의民族

數千年前의 녯적 領永되엇든 下等民族과 一種의前定動物이 文字 그대로 긴 冬眠에서 蘇生하엿다는것이『쏘베-트科學『아카데미』에서 發表되엿다。此等의 動物은 永遠의 氷原인『시베리아』北部의 地下 二十呎餘나되는곳에서 採集된것이라고 한다。이地方은 北極에서 中央『시베리아』를 通해서 蒙古高原까지 寒氣이 몹고 地下六呎以下는 아모리 寒氣이지라도 凍結되여잇다。『아카데미』의 發表에 依하면 이生物은 約三千年以前부터 어름에싸이여 잇섯든것이라고 推察된다고한다。

移動步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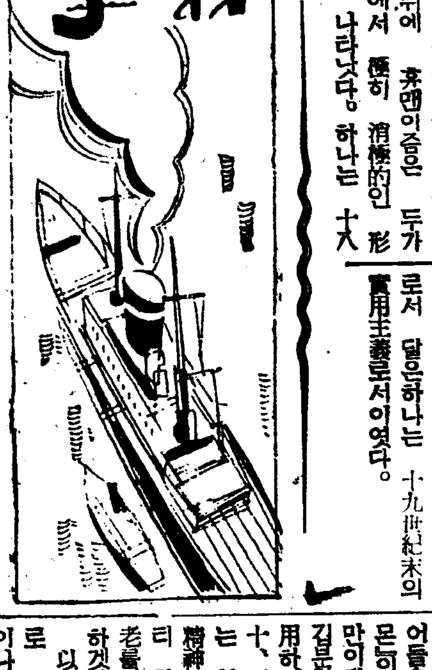
大뉴-욕의 摩天樓街에가면 그壯觀한것은 거의 말할必要도업거니와 [illegible] -러-가 를것으로는 當局이 困難가되지아니함으로 요사이와서는 有名한 建築技師『노-만스屠리-』氏가 移動步道를 案出해내엿다。그것은 費用의 設計와가티 椅子에 올너안진것으로 十萬까지 사람을 輸送할수잇는設計인데 時速十二哩半 한時間에 八十五回 停止。그동안에 二十萬名을 輸送할수잇다고한다。



男性『홀몬』解說

그効能과將來에關하야

③ 李鶴松



男性『홀몬』의應用

男性『홀몬』을 直接人體에 實驗하여본것은 뿌론세카-敎授이다 男性『홀몬』을 人體에 注射하면 陰萎、遺精、性慾減退或은 缺如、快感減少、勃起不全、早漏等에對하야 顯著한 效果를볼수가잇고

毛 髮이 黑變或은 新生하는일도잇다 生殖機能不全으로 因하여 生起는여러가지 不快한 症狀即 頭痛、憂鬱 不眠、食慾不振、體力及精力減退等을 減少시킬수잇다 男性『홀몬』을 更年期以後의 老衰期에잇서 身體의 機能이 衰退되엿슬때에 使用하면 第一몬저 認識할수잇는것은 食慾이 增進하고 皮膚가滑澤하여지며 赤血球、血色素의增加로因하여 皮膚의血色이非常히조와지는것이다 그다음에는 性格의變化가생겨서 憂鬱하든性格이 變하여 快活하게되고 言語動作이 敏活치못하던것이 敏活하게되여 精神及肉體의 能力이非常히增加된다。特히筋力의增進을 尿中에排泄되는크레아틴을 과못소氏 筋力計에依하면 明하다한다 即老人의筋肉이 無力하여지는것은 筋肉內에『크레아틴』이라는物質이 減少되는까닭이요 이와反對로 筋肉內에『크레아틴』이 增加되면, 筋力이 增加된다 그럼으로 筋力의 增減은 筋肉『크레아틴』의 增減에 따라 左右될수잇다 그런데 筋力이 衰弱하여진老人에게 男性홀몬을 使用하면 筋肉內의『크레아틴』이 增加되고 또『못소』氏筋力測定計로 筋力을 測定하면 筋의 動作曲線이 大端히 延長되다 이런化學的 物理學的方法에 依하여 無力하여진老人의 筋力이 增加하는것을 알게될뿐만아니라 男性홀몬을使用하는 老人自身에도

筋 力에 著明한 差異가나는것을 自覺的으로알수잇다 그外에 老衰現象으로 이러나는 睡眠不安 眩暈 頭痛 耳鳴 四肢厥冷等이 消失或은減少된다

動物實驗 男性홀몬을 動物에 注射하면 그動物은、疲勞恢復率에對하여 防禦力이 잇는것을 報告한例가잇다 이것은男性홀몬이 身體各器官의 活力을 强하게하여 抵抗力을 增進시키는 結果일것이다

男性홀몬의 將來

前述한바와가티 男性홀몬은 生殖腺機能不全이 잇는사람에使用하여 生殖腺機能을 回復시킬수가잇고 또老衰期에잇는 老人에게 使用하여 體力과 精神力을 增加시킬수잇다 勿論이것이 完全한것은 아니나 어느程度까지우리가 老衰에 對하여 抵抗할만한 힘을 어들수잇다는것은 하나의 事實이다 우리人類가 바라는 不老長生의 全部를 完全히 어들수는업스나 現今의 男性홀몬의 硏究로 不老의 極少部分만이라도 實行할수잇스니 實로 깁분일이다 우리가 男性홀몬을使用하여 六十、七十의 老人을 二十、三十의青年으로 逆行시킬수는 업스나 衰退하여진 體力과 精神力을 三十四十時代의것과 갓티 할수잇다면 이는우리의 不老를 어느程度까지 어더볼수잇다하겟다。

以上의 結果를 어든것은 實로 半世紀間의 硏究에 依한것이나 이제로부터

多 數의 硏究者가 長久한동안 硏究를 繼續하면 좀더 不老를爲하여 깁븐結果를 어들수잇지안흘가한다。또現今의 男性홀몬製劑는 動物의 睪丸、尿中에서 抽出하는 關係로 藥價가 大端히 高貴하며 一般이 使用하기어려운것이 缺點이다。一般이 使用할수잇는 安價의『홀몬』製劑 化學的으로 合成시키는 方法이 잇서야하겟다 그런데 現今男性홀몬을 化學的으로合成시키는 方法이잇스나 現今의方法으로는 原料代와製造工費가만히들기때문에 그도아직 高價가 아니면 어들수가업다 그러나 이것도 일이 合成할수잇다는것을 알엇스니 改善을거듭하는동안 藥價은 우리가 바라는 安價의製劑까지이를것이아닌가한다 그러케

[illegible]

詩苑社出版의 「乙亥名詩選集」 (上)

咸大勳

畏友 吳熙秉君이 主宰하는 詩苑社에서 乙亥一年間에 發表된 작잔흔詩를 嚴選하야『乙亥名詩選集』을 發刊한다는 消息은 입이 드른지 오래지만 이구나 그詩集을 내가바든것도 벌서 月餘나 된다 元來 昨秋 某出版業者와 文藝全般에 亘하야 年鑑形式으로 一年間 發表되든詩、小說、戲曲評論等 各部門의 優秀한 作品을 選하야 出版하려든 計畫을 세웟든 나이엇음 그것이 實現되지못한오늘날 畏友吳君에손으로 이詩部門하나만이나마年鑑形式의『乙亥名詩選集』이刊行되엿슴은 우리의 出版界를 爲하야 또한 詩壇을 爲하야 크게 欽賀하는바이다 그런中 이것을 嚴選하려는 意圖下에서 詩壇의 權威十人을 編輯委員으로 하야『名詩篇』이 各紙誌面 여긔저긔에 허터저잇서 한꺼번에 어터보기어려운것들을 에워서차저 또 精選刊行한데 對해서는 良心잇는 出版이란意味에서 또한 크게致賀하는바이다。

이『詩集』은 旣成詩人으로부터 新人의詩까지를 한데모아 마-치 蒼空에빗나는 星群과가티 그크고적게 빗나는것이 모-두 그果實가 잇슴을 發見할수 잇스니와 五十餘人 七十餘篇의詩가 다各各 그特色을갓고 玲瓏히빗남을 볼때비록 二十年의 歷史를 갓기는햇스나 恒常 貧弱한 出版의 途程을 밟어온詩壇으로서는 적지안흔 收穫이라고 볼것이다。

그러나 이詩集 아니 朝鮮의 詩壇은 너무나 時代的呼吸과 脈搏 그리고 朝鮮的苦悶相을 차즐길이 업슴이 크게 유감된다。모-두 自然을 노래하고 個人的 身邊을 읇픈것이요 거긔 좀더 끄러오르는 情熱을 가진 苦悶의 자최가 적음이 遺憾된다。

詩人은 무릇 한개時代的[illegible] 그들의노래는 그땅의生生한香氣를,옴겨놋는 새다。그러기때문에 우리는世界 그어느 詩史를보드레도 藝術的 그詩와 그社會的苦惱가 가티흘러잇슴을보다 一例를 로시아詩에서 보다하드레도 푸-쉬킨으로부터 블로-크에 이르기까지의 舊로시아詩人들의 詩엔 거긔 各其特色을가진時代的苦悶의자최가 잇고 革命派의 詩壇은破壞와建設의 리즘이 흐르고잇는것이다

그러타고 나는無條件하고 詩나小說에 無産 그 어떤 思想과思潮에 支配만 되것이나하면그도또한 首肯하기 어려운일이나 그러나 나는 朝鮮의詩壇이좀더 이朝鮮的苦悶의 世界를 그려줄수 업슬가 하는것이 詩人아닌 나의 所望인것이다 그런데내가 이詩集에 실닌七十餘篇의 詩를通讀하고 늣긴바는 詩의水準이其前에比하야 向上되엿다는것과 그形式과內容이 豐富하다는것이다 그러나 나는一一히個評을여과서讀함 紙面과 時間이 업슴으로 이를 避하고 다만 이詩集中의몃편 읽은 感想을 羅列하게나마 적어볼가 한다

金珖燮氏의『孤獨』

이詩는 그孤獨한 世界가 마-치朝鮮靑年의 곳어는 孤獨을 그린것가튼 感情을준다。

이제 그처음을보면

내 하나의 生存者로태여나서
한間무덤 그넘어는 無限한氣流의 波動도잇서
바다 깁흔 그곳 어느 고요한 바위아래
내
고달픈 고기와도갓다。

이一聯은 確實히 朝鮮的現代靑年의 苦悶相을 如實히 그린것 이라고본다 自由로히 헤여단일 그고기、그고기는 한間무덤 그넘어는 無限한氣流의 波動이 잇기때문에 그는고달픈고기와도가튼 活動을 못하는것이다。그리하야 움직일수잇는 이땅의苦悶의 世界에서 그는시드른고기가되여서 孤獨의悲嘆속에 지내는 [illegible]階級의 苦惱를 如實히들어내엿다

[illegible] 아름다운것은 잘들다
그림은 世界의 斷片은 아즐다。
오랜世紀의 習慣만이 나를 이끌고잇다
神經도 업는밥
時計야 奇異타
너마저 자려무나

에잇서서는 어光明이든 現實에對한 곳어는『斷念』이 無限한 孤獨에서 조울고잇다。이리하야 確實이 이詩는 이世紀에잇서서 朝鮮的現實의苦悶의象徵이라고意味로 나는 늘흐게 評價하는바다。

讀者交社室

▲月刊雜誌『詩苑』(今年一、二、三四月號)四部를가지신분中에 讓與해주실분이게시면 時代대로送金하겟습니다 讓與이게신분은 紙上으로든지 左記住所로알려주시면 感謝하겟습니다 特히 詩苑社에 右記四部가殘有하거든通知해주십시요

高原郡高原面邑內 韓乙洙

▲小生은未來의 藥業界에進出코저하옵는바 누구든지 下의條件으로 合同하여주실분을 바람니다 封書로 問議하여주시고 左記住所로 一、本人은 [illegible] 高尙하신분 一、藥劑師或은 藥種商免許가 有하신분(이미開業하신분도 無妨합니다) 一、將來有望한都市에 開業하고資本은 合同할일

咸南永興郡順德面仁興里 李昌鳳

▲讀者諸氏께로 社交室을 通하와 一開하오니 容恕하시고下敎해 주심을 바람니다 舞蹈家 趙澤元氏宅의 住所를 讀者諸氏中에서 알려주시기를 바람니다

京城市內公平洞一八 李承敏

▲小生은 今年十九歲의 男子이온대 寫眞에 約二年 經驗이잇사온대 就職을하려고하나 아는곳이 업서서 아직 就職을 못하엿습니다 製版(銅版及凸版)에도 滿一年 經驗이잇고 普通人像寫眞에도 一個年 經驗이 잇사오니 製版所나 或은 寫眞館에서 小生가튼 사람을 쓰실분은 社交室을 通하여서 알려주시면 卽時가서 相議하겟습니다

一就職願生

▲一、金廷漢作『寺下村』第八回分(一月十六日夕刊) 第十二回分(一月二十日) 一、韓雪野作第四回分(二月八日) 生이收集中 事情에依하야서 收集하지못하엿스니 或讀者여러분中에서 有하시거든 生의게讓渡하여주시오면 謝禮를 하겟습니다

龍岩浦 李寶俊生

▲小生은 今年八月에 普文試驗에 應試코저합니다 準備에適當한 書籍을 좀紹介하여주시면 買受합니다 又中國語講義錄을 求코저하오니 價格不問하고 願합니다 或方法을 下示하옵기바라오며 本報를 通하야 下敎하시면 곳買受하겟습니다

咸南北靑東里 李根昌

▲小生은 高普三年에 中途퇴學한 十九歲男子이온대 小時부터 映畫界에 無限한 興味를가저 將來 映畫界에 몸을던지고저하니 第一映畫界에 나슬야면 日本俳優學校를 갈가요 朝鮮에映畫養成所로어들가요 혹은監督者弟子로서 成功못할가요 엇지할가요 決斷코 一時虛榮心과 空想으로 志望하는것이 아니요 또는 [illegible] 志望하는것도아니요

全南光山郡東谷面黃龍里 裴福童

▲開城高麗靑年會에서 數年前부터 貞和女子普通學校長 故金貞蕙女史의 同校設立과育英事業에功勞를記念키爲하야 銅像을세운다는消息을드른지 數年이되至今까지에 實現이업스니 엇지된關係로이러케遲滯되는지 社交室을通하야 下敎하시옵기바랍니다

昭和十一年四月十七日

京城 星鄕生

▲金在壽君이어! 大正六年六月二十四日은 陰曆으로同年八月十一日이고 四柱는이러합니다 丁巳 丁未 乙酉 壬寅 [illegible]

市外孔德里三五 朱德寧

▲本人이古錢을 所持하오나 價格을알고십사오니 成讀者諸賢中에게시오면 社交室로 通知하여주시든지 買入希望하시는분은 即接本人에게 問議하여주시압소서

京畿道水原郡八灘面芝月里 一讀者 申興均白

記

明治三十二年製造五十錢銀貨의現時價

同四十二年 同壹圓銀貨의現時價

▲小生이早稻田商業講義 全部 三十二卷이나 實業講習錄全與古本)을 買受하려하오니 左記處所로 通知하여주시면 買受하겟습니다

漣川郡官仁面 洪景均

新刊紹介

▲中央 五月號(主要目次) 擴大되는歐洲의不安 林元根 世界時評 林靑山 馬場財政의 機能檢討 裴成龍 五月의詩壇—기다림 李軒求外數篇 人氣朝鮮三十三人集 나의回想記 赤色巨人의都市『庫倫』呂運亨 어린이寫眞帖 創作其他 發行所 京城府堅志洞一一一 朝鮮中央日報社 振替京城五五七八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ひとのみち 四月號 發行所大阪府中河內郡布施町 ひとのみち出版部 定價七錢

▲野談 五月號(主要內容) 村家의龍…金東仁、老蠶의秘事…申鼎言、李太祖와 子爵…鄭眞村、神劍樂…金伯岳 等其他 發行所 京城鍾路二丁目四五 野談社 振替京城一八三六番 定價二十錢 送料二錢

▲高麗公論 五月號 (新刊號) 發行所 開城府東本町 高麗公論社 振替京城五〇二九番 定價一部十錢

當る廿九日(水)晝間大公開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成る村の出來事 / 森尾重四郞大會
新興キネマ超特作 坂東妻三郞主演第二回作 オール・トーキー
森尾重四郞大會
坂東妻三郞主演 伏見直江・森静子・杉山昌三九 松本泰輔・瀧花久子・中村吉松 三映社大競演
時代劇界の巨王大監督が總懸命の第二回オール・トーキー!! 無影組と天目陣の爭ひ!お西と、蘭蘭と、醉眼之丞の戀の鞘へ!! 事件は次から炎へと波紋の四ッ巴! 謎は!誰の手に! 大衆小說のトーキー化!!
新興キネマ東京撮影所超特作 原作 中野實 脚色 和月夜 監督 上野眞嗣 作曲 コロムビア・バンド
オール・サウンド
成る村の出來事
和歌山公子・中村僉次主演 小宮一晃・大友壯之介・近衛秀子助演
永樂町 電話三五番 中央館

五月一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超特作二大名畫 一時上映 每日晝夜三回興行晝間十二時부터 六時半까지 夜間八時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巨匠도마아드킨스氏監督
流線型超特急
主演 사리-부렌・캐롤-스ㅌ렛든氏
[illegible]
松竹蒲田作品 松浦榮枝嬢 酒井光子嬢主演
現代 幸よ女性にあれ
米澤正夫氏監督
메도로社超特作品 레지날드・바-가氏監督
愛의大雪嶺
鍾路五丁目 電光二五番 第一劇場

四月三十日부터晝夜二回 東洋劇場直營劇團 東劇座公演 第三週
故李人稙先生原作 李雲芳脚色 家庭悲劇 雉岳山 三幕七場
出演(韓一松、崔仙、金陽春 卞基鍾)
朝鮮新小說의創始者故李人稙先生의遺作으로朝鮮家庭의葛藤과煩惱을날카롭게諷刺한稀世의傑作이다
金健 作 戀愛悲劇『사랑은괴로워』一幕
主演(朴昌漢、金英淑、徐玉 沉汀、宋海天)
사랑을夢想하는젊은이들이여 사랑에形態를무를때무어라고對答할것인가사랑은아름다운것일까괴로운것일까
洛山人作 喜劇 "따귀가한斤" 一幕
따귀도斤으로팔습니가
西大門町 電光三三番 東洋劇場

四月二十九日ヨリ五月五日マデ『春の爆笑週間』
上映時間表 第一回 第二回 第三回
ひやめしお旦那 / 車に積んだ寶物 / 極樂槍騎兵 / 若旦那百萬石
下加茂落語トーキー
小笠原章二郞が春風亭柳橋張りの落語『櫻ぷろ』が聞きものです。
▲ひやめしお旦那 蒲田ナンセンス
▲車に積んだ寶物 小倉繁・突貫小僧主演 メトロ・ゴールドウイン映画
▲極樂槍騎兵 スタン・ローレル オリヴァ・ハーディ主演
▲若旦那百萬石 蒲田明朗トーキー
本町 電話 浪花館

朝鮮映畵時代到來
第二階段으로오르는朝鮮映畵 (下)
崔南周

그리고 요사히 신문에보도되는것을보면 심훈씨가 재출마를하게되여 예전(먼동이틀때)에서본 그수완을다시보게되엿스니 지원일이요 이분도 내가존경하는이에한분입니다
또 듯건데유백남씨가 ○、○M、을 창설하엿다는데 이분은 내가 영화계에 첫발을 드려놀때에 그분의 지도를 바뎟고 존경하든 선배입니다。
그리고 근일에 안종화씨의소식을 들을수 업스나 이분은 인격적으로 존경하는이요 이분의 장래를 축복하는바입니다。

◇

하여간 아즉까지 내가 보기에는 이 수년래로 활동한 이들이 면목은안되나 작품은 비교적 만흔 수효에 이르럿습니다
그런데 각색가(씨나리오라이터ー)감독 이륙수한 긔술자가 부족한 조선영화계지만 조선영화라하면 모자라는 다른 긔술자는 다른곳에서 잠시 초빙하여온다하드래도 원작자 각색자 감독만은조선사람이 아니고는 조선사람이 리해할수업는 영화、조선의 색채를 볼수업는 영화를 맨들고말것이니 아모리 조선에 긔술자가 부족하다하드래도 장차 나아올 영화긔업자로서는 여기에 기픈고려가업서서는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파거에 일본내지에서도 외국인들이 일본영화를 제작하려왓다가 실패한례를보더라도 간바도잇다합가티 그곳의 향토색、그곳의인정풍속들은 그곳사람이아니면 기피드러가 알수업는것은 누구나다ー알일입니다。또 이방면의 인물을양성하는데 잇서서도 이점에유의치안흐면 조선영화로서의 그룩이성을 일허버리기쉬우리라고봅니다

◇

나는 늘ー지방으로도라다니는몸이지만 언제나 신문지의 이방면긔사나 또이방면의 소식을 듯고자하는사람입니다
요사히 풍문에 긔업적조직을 하라는 인사가만타는 말을드럿고 또 붐워간 이조화체가 나타나리라는 소문도 들럿슴으로 엇지갓든지 희소식으로압니다
나도 이방면에 유의하고잇든 만큼 어떠한자신이 생길때에는 나서보랴고 하지만 과거와가티 무모한짓은 하고는십지안읍니다
「꿈장사」라는 영화의한면이 나의일생에 이치지안는 내생애에 파문을주엇스며 그것이 나는 조선영화계에서 내망을드리킬수 업는 큰인과가되고 마럿읍니다
ー그동안 영화인 제씨

한문화의갑스로 아프로 조선영화계에 큰건설이 잇슬것을 미드며 또영화인제씨의 그희고에 에한엿을 오래지안흔미래에 서차저볼수잇스리라고 밋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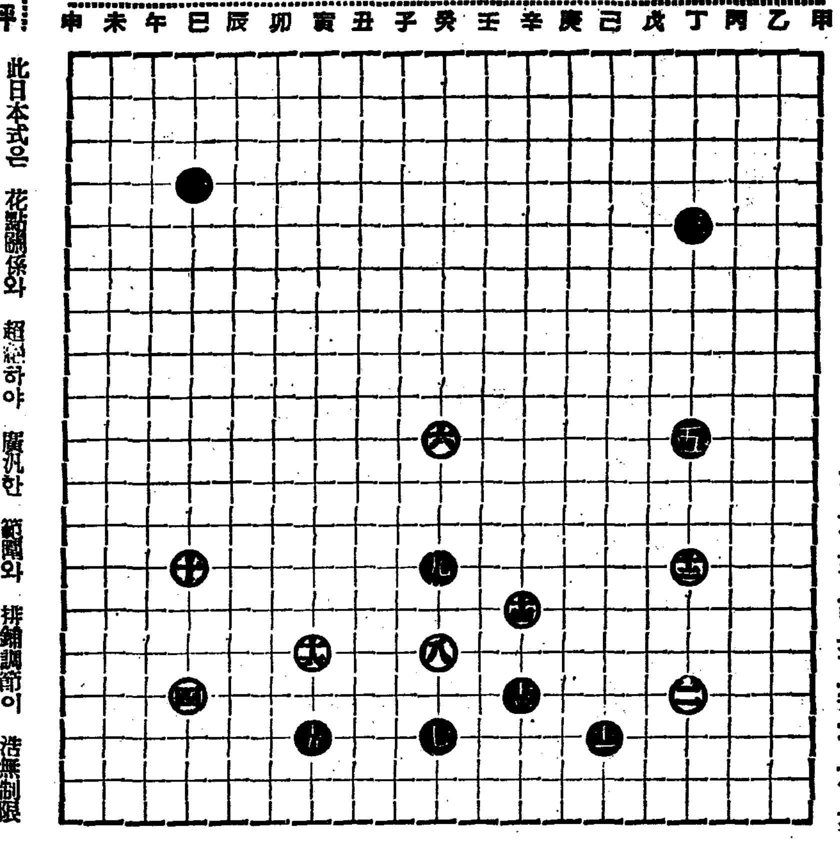
나는 지금도 그방면을 떠나서 소위 실업에 종사하는사람이나 언제나 갈업는 발휘못하는 나자신만아는 성의와 열을가지고잇습니다만은 나도 여러분과함께 이방면의 일꾼거듬날이잇도록 애쓰는바이나 언제든지조선영화계의 융성과 여러분의건투를 비옵고 이만졸문을그칩니다(끗)

커트는 MGM의스타모렌、오술리반

本社主催 圍碁對局譜 =1=

白 丁奎泰
黑先 任佑植

手	着點
●一	巳의四
○二	丁의十六
●三	丁의五
○四	巳의十六
●五	丁의十
○六	癸의十
●七	癸의十七
○八	癸의十五
●九	癸의十三
○十	巳의十三
●十一	己의十七
○十二	丁의十三
●十三	辛의十六
○十四	辛의十四
●十五	寅의十七
○十六	寅의十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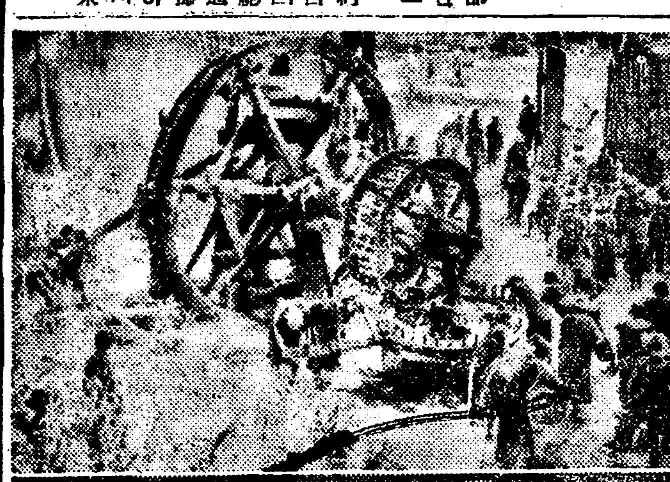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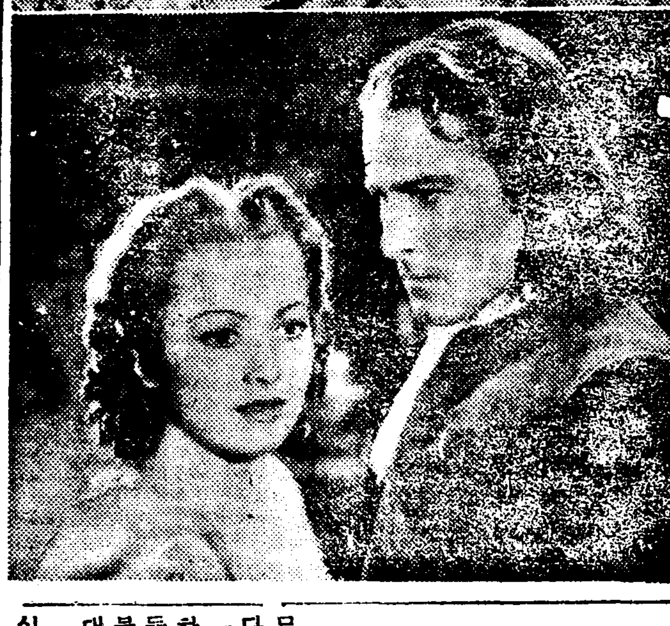
蔡極文氏日評 此日本式은 花點關係와 超絶하야 廣汎한 範圍와 排鋪調節이 浩無制限함을 考究하여보면 棋道의 元位로 推想되다 黑巳의四 丁의五白 丁의十六巳의十六은 在來式高低目을 變更하야 新規를 作成함이나 此亦 改革界에 特點으로 品評이 喧藉하다 黑癸의十七 己의十七은 列勢를 主張하고 白癸의十五 寅의十五난 防禦策으로 中央地盤을 鞏固케함인가하노라

映畵片信

W、시한、푸로닥숀 本社와契約成立

요전자 쫑스撮影所의 製作部長으로 잇든 윌필드、시ー한은 그去就가 注目되든바드디어 파라마운트에 유니트、푸로듀서로 入社하기로 契約되얏다。시한의 契約은 그自身이 直接製作에 當한 一年四本의 스페살作品 또 그의總指揮로 製作된 六本의 普通作品을 提供한다는것인데 撮影은 쎄라·웬자作品을 製作하든 제네랄·사뷔스 撮影所에서 行하리라고한다。契約은 將來三年間이라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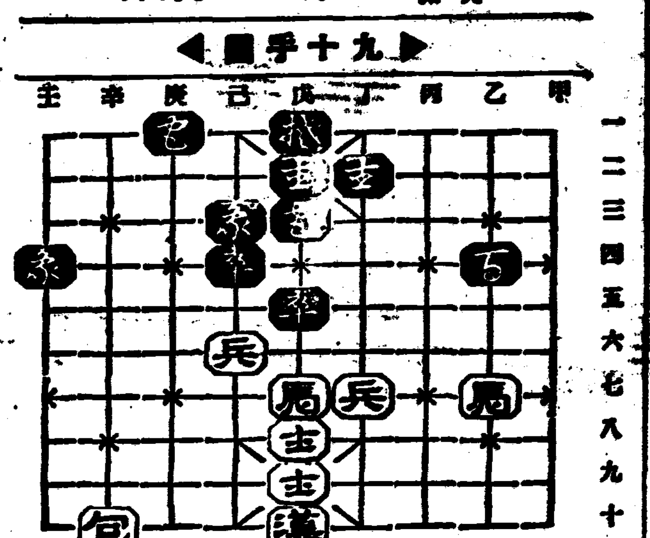
海賊블루드

끗업는 大海原에서 征覇의꿈을 품고 傍若無人하게 跳梁하든 海賊 블루드、地中海와 太西洋을 縱橫馳驅하며 無敵을 자랑하든 블루드 그블루드가 英佛海戰에 際하야 英艦隊가 危機에 處하매 奮然 英艦隊를 도와 佛艦隊를 擊滅하는 豪快한 擧動。와나·나쇼날超特作으로 主演은 에롤후린 監督은 로스·알렉산더와 마이켈·카레이스

本社主催 將棋名手對手局譜 (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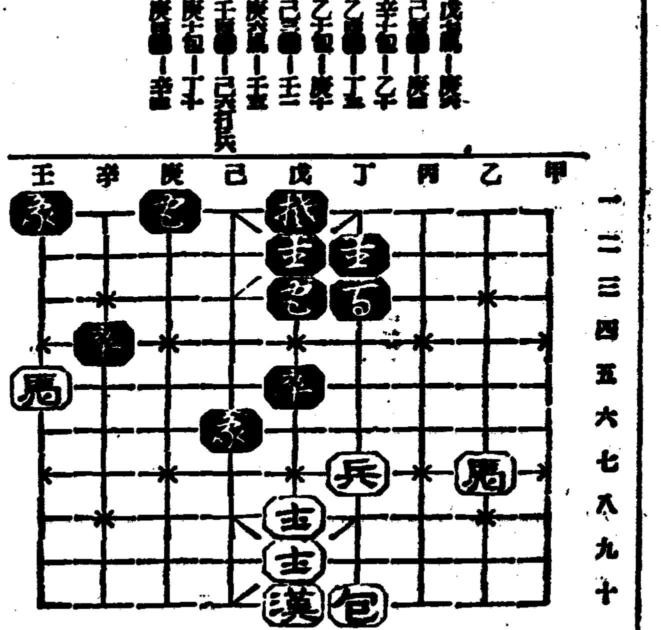
手先第一局 李在星 對 李明輝

◀九十手圖▶



◀百手圖▶

戊六馬ー庚六 己[illegible]ー丙[illegible] 辛七包ー乙七 乙[illegible]ー丁[illegible] 乙七包ー辛[illegible] 己三[illegible]ー壬三 庚八馬ー壬[illegible] 壬[illegible]ー己[illegible]打兵 庚十包ー丁十 庚[illegible]ー辛[illegible]



라디오

四日(月曜)

◇午後六時三〇分 唱歌=兒童愛護週間記念=一、童唱 我ガ帝國 二、〃童唱 水車 三、獨唱 春風 四、獨唱 愛らしき花 五、童唱 花嫁狐 六、二重唱 さくらさくら 蕃松公普生徒 피아노伴奏 宣永權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濟解說 朝鮮日報社 主筆 徐椿
◇同八時 講演『生活과住宅』 朴東鎭
◇同八時三〇分 漫談『[illegible]』 黃材景
◇同九時 (東)獨唱 벨트라메리ー能子 伴奏 高折宮次
◇同九時三〇分 音律『靈山會像』 玄琴 伽倻琴 洋琴 短簫 細笛 杖鼓 [illegible]

第一放送

◇午後六時 (東)이야기 初夏의科學 岡部長節
◇同六時二五分 (東)基礎英語講座(九)
◇同六時五五分 (東)커렌트토픽스 藍谷 榮
◇同七時三〇分 (東)講演 上院의起源과各國의組織及改革論 法學博士 占部百太郎
◇同八時 長唄 吹牛女等
◇同八時三〇分 琵琶 濱田旭翁
◇同九時 (東)獨唱 벨트라메리ー能子 伴奏 高折宮次

五日(火曜)

◇午後〇時五分 (東)맨돌린과하ー모니카
◇同三時一五分 이야기『端午이야기』 普成高普 黃義敦
◇同四時三〇分 野球試合實況ー京城그라운드로서『京電對殖銀』
◇同六時二五分 講演=京城으로부터全國中繼 渡邊學務局長
◇同六時五五分 兒童新聞
◇同七時 經典解說 佛敎時報社 金泰洽
◇同八時 兒童愛護週間講演『第十回全國兒童愛護週間實施에對하야』 總督府社會課長 嚴昌燮
◇同八時三〇 赤壁歌外 一、赤壁歌 二、執杖歌 三、小春香歌 郭山月 郭明月
◇同九時 映畵이야기『秘密』 李承雨
◇同九時三〇 唱劇調外 一、短歌『白髮歌』 二、唱劇調『沈淸歌中皇城올나가는데』 鼓手 李東伯 丁元燮

第一放送

◇午前六時三〇分 (東)基礎佛語講座(十) 丸山順太郎
◇同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봄의皮膚病(二) 瀨戶 潔
◇午後〇時五分 (東)만돌린과하모니카
◇同二時 婦人時間 須江 愛子
◇同三時一五分 이야기(朝鮮語) (釜山)端午 黃義敦
◇同六時 (東)童話劇 端午의名節
◇同六時二五分 講演ー京城에서全國中繼 朝鮮에잇서서心田開發運動에對하야 朝鮮總督府學務局長 渡邊豐日子
◇同六時五五分 (東)커렌트토픽스
◇同七時三〇分 講演 兒童愛護의根本精神 京城帝國大學敎授 松月秀雄
◇同八時 (大)一、五月幟 라듸오風景二題
◇同八時三〇分 (東)二、武者祭
◇同九時五分 (新)라듸오聯曲ー加治是及船中에서中繼ー

連載野談 布衾記 (五)

申鼎言 作
金熊超 畵

불단금가락지(四)

공주는 치식을 이저버리시고、신하는 황황급급하고 액정들은 종종거름을치고 여섯마을촌장이 몰려드는등 궁중이 발끈 뒤집힌것은 대왕이 별안간에 환후가 위중하신 까닭이다。
대왕은 벼친에 누으신뒤 두눈을 감으시고 두입설을 꽉다무시고 아무 말슴도 아니하신다。
『아바마마!。아바마마!。』
하고 공주는 친히 약그릇을밧들고 목메인 소리로써 대왕을불으신다。그러나 대왕은 아무대답이업스섯다。
공주는 대왕이 대답을아니하실사록 더욱 초민하사 두손으로 대왕의 입을 벌리시고 약을 흘러너으시랴하나 막무가내다。
공주의 부르지시는 소리가 너머나 애처러우시매 대왕의 감으신 두 눈에서도 눈물이、흘러내리신다。
공주도 우시고 신하들도 울고 궁녀들도 운다。
『후ー。』
하시고 대왕은 긴한숨을 내쉬시며 두눈을 뜨신다。
『아바마마!。아바마마!。』
하시고 공주는 대왕이 숨을 내쉬시고 눈을 뜨시는것이 너머나 반가워 깁븐 목소리로써 대왕을 부르신다。
대왕은 공주의 손을 잡으시고 다시 눈을 감으신다。
『아바마마!。아바마마!。성총을 돌리사 약을 바드소서。』
하시고 공주는 대왕이 다시 눈을 감으시는데 가슴이 조여드섯다。
대왕이 공주의 손을 잡으시고、한참동안을 게시다가 다시 두눈을 뜨시며、
『공주와 경들에게 일을말이잇거니……』
하시고 공주와 신하들을 바라보시매 안종은 새로 광채가떨치시고 음성은 매우 명랑하시엿다。
『무슨 분부시온지?。』
하시며 공주는 너머나 신긔한듯이 대왕의 분부를 귀를 기우려 기다리신다。
공주는 대왕께서 정신이 다시도시는 줄을 생각하시고 너머나 깁버하시섯다。
그러나 대왕의 긔색을 살피는 늙은 신하는 두눈에 눈물이 어리엿다。
그것은 대왕의 환후가 암만해도 심상히 보이지 아니하며 또한 분부하실것이 잇다시는것은 아마 마주막의 분부가 아니신가 생각한까닭이다。
대왕의 분부、
『우리 신라나라를 영원히 빗나는 나라가되게하여라!』
『예、지당하오이다!』
『우리 신라백성은 충(忠)과효(孝)와、의(義)로써 피가되고 살이되고 뼈가되여 가지고다 각각 나라를 직히는 신(護國神)이되어라!』
『예、지당하오이다。』
『상제(上帝)께와 시조신사(始祖神祠)에 정성으로 긔도하야 하늘의 변고와 땅의 재앙을 업게해서 우리백성들을 평안히 살게하여라!。』
『예、지당하오이다。』
『장수와 군사를 잘 길러서、까닭업시 우리나라를 침범하거나 또는 모든인생의 화목과 안녕을 깨트리려는 자가잇스면、사정을 두지말고칼끗에 붉은 피를 뭇처 가지고 넓은천하를 경계하여라!。』
『예、지당하오이다。』
『나라를 사랑하는 그사람은잠간동안만하고 마는 사랑이아닌것을 우리백성들에게 대대로 일깨워 주도록하여라!』
『예、지당하오이다。』
대왕은 이 다섯마듸 분부를 힘차고 명랑하신 음성으로하신뒤에 다시 두눈을 감으시고 외마듸 숨을 길게 쉬시며 두억개를 잠간 드시더니 이내꿈게 운명하시다。때는 정히 대왕이 재위(在位)하신지 오십사년이되는 초정월이다。
『아이고!。아이고!。아이고!。』
『아바마마!。아바마마!。』
『아이고!。아이고!。』
『아바마마!。아바마마!。』
공주는 대왕을 얼사안고 통곡、통곡하신다。
그리다가 내종에는 몸부림을 치신다。
신하들도 몸을 노아 설리운다!。
더욱이 공주의 애통하시는양은 차마 볼수가업섯다。
이때 심흥시 내리는 흰 눈송이는 여전히 궁중에서 나뷔낀다。그리고 해빛조차 컴컴하야진다。
조정의 늙은 신하와 여섯마을의 촌장은 서로 의론하고 먼저 공주를 밧들어 임검으로되시고 그 뜻을 나라에 발표하얏다。
녀왕은 즉위하시자 즉시 대행(大行)의 국상을 발표하섯다
『뎅!。뎅!。』
황룡사에서는 국상이 발표되면서 곳 종을 울리어 조례(弔禮)를밧들어 올린다。
신라 서울은 거리 거리 마다 국상을 당한 망극한 빗뿐이다。

曆 五月五日(火) 閏三月壬辰大(十五日) 丁亥·土·尾·危
◉祭祀에宜함
●立夏五月六日(後十六日)

四年前協定地價로 用地買收를劃策

地價再協定과過去背信例擧

三十餘地主斷然不應

長津水電또말성

【長津】장진수전회사에서는 작금 경계거에 지주전회사 실정이 달으것도불구하고 지금보다 토지갑시 반가도로되는사(長津水電會社)에서 변전인 소화팔년도 제일기용지는 제이기 매수당시에 표준한 설명서가격 저수용지매수를 압두 본개를 놋치 지주측에서는 대표 [illegible](林[illegible])씨를 통하여 과거회사에대한 배신을 다음과가티 들어말하고 삼차지주들은 회사요구에 절대 응하지아니하엿다고하는데 그진정이 주목된다고한다 거되여 지난 삼천칠오백여원시에 중남면사무소(中南面事務所)에서 일반지주와 도 군 경찰관계자 협석으로 타합회를 열게되엿섯스나 결국수포에 도라가고말엇다한다 이제 그전말을들어보면

一、價格協定을否認할것

二、道路用地의浸水地帶를 一時賠償할것

三、開拓林野[illegible]時面當局立會로 言約하고 結局 新興製鐵會社에도 經營權을 許與할事

四、面當局이 證明한未耕田을會社는 限定치아니햇다는것

五、浸水地區域內 共同墓地의移轉하여준다하고 數의多大를理由로違約한것

六、新面城道路當時에 斡旋으로中南面區域代表會社는 支拂치아니햇다는것

전기와가튼사건이 청출해잇슴은 선한처사라 해서 당국의간섭이 아무리 어떠다하더래도 금번은 수전회사로부터 지주와 군 면당국을 첫제로 원만한 타협이 잇기전에는 절대로 승락할수업다는것이라한다

李應甲府議失格

【平壤】평양부회의원 리응갑(李應甲)씨는 선거위반사건으로 [illegible]

問題의組合長은 李晩秀氏再被選

臨時總會에서 再選한 結果 東部金組糾紛終幕

【釜山】부산동부금융조합에는 기보와 가티 조합원과 임원사이에 조합장(李晩秀)씨의 선거를 둘러싸고 분규가 이러나 [illegible] 조합장 이만수(李晩秀)씨가 재피선되엇다 [illegible]

▲組合長 李晩秀 ▲監事 [illegible] 淸水喜作 伊藤光三郎 [illegible] 鄭東季 鄭順文 丁斗鉉 [illegible] 承 小荊川 加茂 井內 [illegible] 鄭部 福山

安溪金組員負債 卅三萬五千餘圓

每人當百二十餘圓의比例로

安溪農村의窮乏相

【安溪】요사이 당국의 시정방침으로 소위 농촌진흥이니 부채정리이니 하는 전제하에 농산어촌을 망론하고 진진포포까지 대활동을개시하고잇는중이나 아즉것 그효과는 구우일모(九牛一毛)의격을 면치못하는 상태인데 더욱 경북의성군 안계일대에서는 수변대 재앙이떠나지 안는지방으로서 일반세농층에서는 막대한채귀에 졸리고잇는중 요사이당지 금융조합의 대부액을 조사한바에의하면 조합원이천칠백사십륙명중 대부액이삼십삼만오천이백사십여원이라는바 매명하 일백이십여원이라는 부채에 신음중으로 일반농촌의궁핍상을 여실히말하고 잇다한다

내안해차저주오

【元山】요지음 원산서에는 수색원이 매일사오건씩 들어오는데 그대부분이 불비한를 따고 달어난 안해를 차저달라는것이라는바 지난일에 가출된 수색원중에서 한건을 소개하면 다음과갓다 원산부[illegible]동(錦石洞)[illegible]지 정[illegible](鄭[illegible])은 조[illegible]粉(ㅎ)과 약혼한후 작년이월부터 이래동거하야왓는데 지난일일에 자식가 로동하러나간사이에 어대로 고비원주하야 돌어오지 안는다고 수색원을 제출하얏다한다

敎育咸南에大異狀

十個月間中途退學者

五千四百名을突破해

一農村疲弊의反映一

【咸興】피폐를 면하고잇든 농촌경제상황의 가장비참한영향의 하나는 문맹이나 면하라고 초등학교에입학한 아동들이 한달에오륙십전밧게 안되는 수업료도 지불할수업서서 중도퇴학하게되는것이니 함남도학무과에서 지난해사월부터 금년이월말까지 십일개월동안 도내각초등학교학생동태를 조사집계한것을 보면 전부오천사백사명 으로서 학교별로보면 공보교의이천구백십구명 간이학교의 오백십오명 사립초등학교의 사백구십구명의 순서이다 그리고 이를다시 월별로보면 사월(四月)의 칠백륙십오명이 가장만코 다음은 오월의 사백삼십이명 구월의 사백십륙명 서월의 사백명이데 이는 사월의 춘궁기(春窮期)와 구·십월의 수확기에 휴작으로 식량조차궁하게 되엿는편에 수업료를 납입할 능력이업는것이 여실히나타나는것이다

授業料滯納兒童이 公普에만四千餘名

별항一흉작재지 함남도내에서 초등학교 중도퇴학을 하는아동이 극히만타고 하는것은 별항보도 한바어니와 지금까지퇴학의비참한경우까지는 이르지안코 겨우 통학하고잇는 아동중에서 삼월말현재 수업료체납한 아동은 공보교에만 사천이백칠십륙명으로 그미납액이 오천사십칠원칠십전이며 그중에서 일개월분체납자가 이천오백십이명 이개월분칠백륙십삼명 삼개월분이 삼백칠십사명이고 일년동안체납자도 이십오명이나된다고한다

裡里大火

損害額萬餘圓

【裡里】지난이일 오후륙시반경에 리리읍영정에잇는 칠록(七[illegible]屋)이라는 료리점에서 불이나서 당지소방조와 경찰서에서는 총출동으로 진화에 분주하엿스며 교통까지 차단하엿슴으로 일시는 오고가는 행인으로 인하야 대혼잡을일웟스나 발화된지 한시간이지난 동칠시반경에 겨우진화되엿스나 내부에들어잇는 기구전부를 태워버려 손해액은 가옥(家屋)과 기구(家具)등 약사천여원으로 전부가 약일만여원에 달한다하며 보험액(保險)은 가옥으로 팔천원과 기구로 삼천원등합한 일만일천원이라 한다 발화원인은 연통과 벽사이에 잇는나무판에 희기가 마처 그와가티 발화된것이라한다

◇…完成된 釜山漁船船溜掘의光景……

米檢査不統一로

支所管內當業者打擊

平北道內各米檢支所當局에서

本所에愼重考慮催促

【新義州】방곡검사(籾檢査)로부터 생산검사(生産檢査)에 이르기까지 검사범규가 다를뿐아니라 검사방법에 통일이 되지못한 미곡검사는 정미업자를 괴롭게하고 생산자에 부담을 무겁게할 뿐으로 실제에 아모효과가 업슴만아니라 도리혀 당업자에게 막대한손해를 내이다하야 업자와 농민이 중첩하고 따라서 지켜러될을 계속하는 중인데 이즈음 도리시 지소에서 합격된 현미가 진남포(鎭南浦)로가서 불합격이 되기때문에 당업자는 일부손해과 기러마대한손해를 당하게됨 문제가 발생하얏다 즉 현지에서 검사하야가 모리 합격증을 맛엇다할지라도 진남포에가면 재검사를하야 불합격을 당하는것이 한두번이 아니라고한다 이와가티 되면 당업자는 그물을 원지로 다시 가지고 와서 헐한값으로 팔지 안으면 안되기 된다는바 이에 대하야 평북의 각 지소에서는 최근 본소에 대하야 신중한 처치를 바란다는 서면을 제출하얏다고한다

孟中里脚戲會

七日부터三日間

【孟中里】맹중리에서는 명에 의하야 씨름대회(大角戲會)를 오는칠일부터 삼일동안 개최한다는데 다수선수들은 참가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한다

熱狂的高潮에達한

六臺人士의教育熱

또普校基本金으로

現金五千圓을喜捨

同期成會長徐斗璇氏壯擧

【寧武】륙부一합남북청군신포면육대(六臺)에서 사립보통학교를설립하고저 긔성회를조직하고회장이하 간부들이 불철주야하고 긔본금조달에노력하는바 열단지하는 의연금과 주민들의 열성은 날이갈수록 맹렬하여감바 동긔성회장 서두선(徐斗璇)씨는 특별히 느낀바잇서서 긔본금을 설립하라고 현금오천원이라는 막대한금액을 자진희사하엿다는 미담이 잇서 일반주민들은 칭송한다고 (사진…긔성회장 서두선씨)

現金一千圓喜捨

副會長邊宗聖氏도

씨도 현금일천원을 자진희사하엿다한다 (사진…변종성씨)

【寧武】연속단지하는 의연금은 실로에 보통학교설립 의연금은 실로예상이외로 달지함에놀내인 동긔성회장 서두선씨의 오천원과함께 부회장변종성(副會長邊宗聖)

學校認可確信

基金만完成되면

동면장리정성(李晶聖)씨와 봉성직(奉成稷)씨에 동학교설립인가의건을 의뢰하엿든바 전적상쑤는 군교육계로 설립계획 긔본금조달이 완성되면 인가는 어렵지안타는 확답을드럿다한다

鐵道飛入自殺

身元모를勞働者

【蔚山】지난이일오후일시오분경 울산군 주서면학구리 화장수리 조한수로 제삼간선앞가우의 철로우에서 떼마춤 황동역을 출발한 리듬렬차가 지나가라할때 에돌연 오십세가량되어 보이는 로동자풍의 남자가 뛰어들어 자살하얏다는데 신원을 알수업다고한다

面間道路築造를

住民自進着手

【蔚山】강원도양구(江原道楊口)[illegible]

地方人事

▲金鍾源氏(蔚山郡上北面長)辭任 人事大本[illegible]

▲金敬璇氏(蔚山郡上北面長)新任 人事大同上

愛慾의彼岸

【5】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이리하야 문임은 혜련의 집 식객이 되어서 혜련과 한상에서 밥을먹고 한자리에서 잠을 자게되엇다。 본래부터 혜련은 문임을 사랑하엿스나 한번에 잇서서부터는 더욱 사랑이 깁허지게 되엇다。 이러한 나이의처녀들에게 흔히 잇는일이어니와 두사람의 사랑은 일종의 연애와도 가타서 그들은 가튼갑으로 옷을지어입고 머리를 가튼 모양으로 틀고 무엇이나 꼭 가티하려하엿다。

문임이가 혜련보다 두살이 우이기 때문에 혜련은 문임을 언니라고 부르거니와 그래도 말은 너、나엿다。

「나는 남자가 실혀」

하고 한번은 혜련이가 시무룩하면서 문임에게 말하엿다。

「왜?」

하고 문임은 웃엇다。

「남자란 모두 고약하대。 것트론 번드르하게 꾸며두 속은 모두 개차반이란는걸。 언니는 남자 조화?」

하고 혜련은 웃지도 아니하고 문임을 물끄럼이 들여다 본다。 어머니가 얼마전에 아버지와 박선생에게 대하여서 하던 말이 마음에 걸리는것이엇다。

「망할것!」

하고 문임은、

「남자가 조키는 그야 남자중에도 조혼사람두 잇구 고약한 사람두잇겟지마는 내야 남자를 교제를해보앗서야 알지」

하고 역시 점잔케 대답한다。

「그러면 남자는 해서 무얼해? 우리둘이서 일생 이러케 가티 살아、응 언니」

하고 혜련은 문임의 목을 껴안는다。

「그래」

하고 문임은 무슨 동의치 모를 대답을한다。

「그래두」

하고 혜련은 문임의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혜련의 허리에 [illegible]

「그래두」

하고 혜련은 문임의 목을 안앗던 팔을스스로 노흐며、

「그래두 남자라구 다 고약하지는 안켓지。 그중에두 조혼 사람두 잇겟지」

하며 [illegible]을 생각해본다。 [illegible]은 교회 찬양대에서 서로 알게된 K대학의 [illegible]

함부 학생 아직 단둘이서 담화해본 일도 업지마는 주일날 만날 때마다 더욱더욱 혜련의 가슴을 울렁거리게하는 바리톤 부르는 사랑 그 건장하고도화려하게 보이는 체격 얼골은 좀 검지마는 이마가 넓직하고 명랑한 중에도 위엄이 잇서보이는 풍채 그는 사투리로 보아서서 울사람은 아니오 아마 서도사람인듯 하지마는 매우 미련성 잇서보이는 그。 혜련은 이 임준상을 그리워하는것이 처이것 가 [illegible] 가리로도 생각하면서도 떼어버리기가 어려움을 느끼게되엇다。 봄방학 동안에 한 이십일—어 시일이라기보다도 서너주일 못만나게 되엇어 어떠케 서운하엿는지。 그러할 때마다 혜련은 문임의 손을 만지고 허리를안

고 하는것으로 그것을 이기려 하엿다。 이 사람도! 이 입으 도 못 미들 사낼까。 젊은 여자만 보면 사족을 못 쓴다는 어머니 말슴과 가튼 사내일까 하면 혜련은 슬펏다。

「혜련이」

하고 문임은 혜련이가 저쪽을 고 멍허니 허공을 바라보고잇는것을 보고 혜련의 어깨를툭 치면서、

「혜련이 무슨 생각을 그러케 해? 아마 혜련은 생각하는사람이 잇나바、그러치?」

하고 웃는다。 문임은 몸시 점이 좀 훌쭉한 편이언마는 그가웃을 때에는 비칠때 업는 매력을 발한다。

「응」

하고 혜련은 고개를 까닥까닥한다。

「누구? 응 누구? 대! 아임 [illegible]」

하고 문임은 눈을 흘긴다。

「대주까。」

「응 이야 난 [illegible]」

「언니、 알아맛처바!」

하고 혜련은 문임이가 꼬집으라는 다리를 비키며 웃는다。

「글세。 누구까? 나 아는 사람?」

하고 문임은 흥미잇는듯이 고개를 기웃한다。

혜련은 고개를 까딱하며、

「그렁 아주 잘 아는 사람」

하고 팔짝 웃는다。

蠅 빈대 진드기 蚤의 撲滅은

只今行하십시오

여름보다效果的입니다

파리는四月부터五月에 發生하는 그繁殖力의猛烈한것은 徹底히撲滅하여야 [illegible] 其後南京虫(赤蟲) 이マツ蠅取粉을뿌려두면 [illegible]

【蠅】 前에말씀한이マツ蠅取粉을 [illegible]

掃除 前에 [illegible]

衛生大掃除 南京虫、蚤、진드기等의 發生의 溫床과 掃除에는먼저家屋을淸潔하게하지안흐면 안니됩니다、그리지면 大掃除를 徹底的으로하[illegible]

液體 殺蟲劑는効力이一時的이여서오래 견디지못하고 자리[illegible]

犬猫、牛馬、진드기에부터 잇는蚤、虱、진드기에는イマツ蠅取粉을뿌려두면完全히죽습니다

家畜에安心하고使用할수잇습니다

イマツ蠅取粉은効力이强해서오래 견디고用法이簡單하고家具를더럽[illegible]

軍人들도イマツ 滿洲派遣軍에서는 [illegible] 一部에서 [illegible]

蝨·毛蝨

些少한不注意로 어린애의頭髮과 男女〇〇에虱이發生하는 때는極히簡單히 驅除할수잇습니다 イマツ蠅取粉을充分히뿌리고 二 三時間後에씻스면 親虱이全部죽습니다、또 四五日後에는 卵이親虱이되는故로다시 一次하면 完全히退治합니다

南京虫、蚤、진드기에는 어떤家庭에서든지大端히 苦痛을밧는故로最近簡單한 驅除法이 發見되여 大端히便합니다、그것은 기둥틈난곳、壁間、에南京虫이잇는 場所

果樹一庭木 花卉一野菜

害虫驅除에 꼭必要한 三箇條

殺虫、忌避、刺戟의 훌늉한効果

蠅取粉의今津佛國理學博士의發明한イマツ殺虫劑는日本은勿論世界各國의 專賣特許權을어든害虫驅除劑로全國各地愛用者로부터非常한賞讚을밧고잇다

훌늉한三大効果

イマツ殺虫劑는貴重한樟腦油를主要成分으로하고잇스므로人畜作物에無害로他品에서볼수업는殺虫忌避刺戟에훌늉한三大効果를同時에發揮한다即

殺虫 力이 非常이 强하야 千倍液이라는 稀薄한것이라도普通害虫이면 問題업시 退治한다

忌避 의效果、本劑를 뿌리면 버레의실혀하는냄새가 잎과作物에남어잇슴으로 버레가全然붓지안는다 移動性害虫에는 特히 이效果가 顯著하다

刺戟 의效果、人體에 강하 注射를한것과가티 本劑는 作物에 刺戟을주어 發育을 盛히하는故로 果樹類는가을落葉이二、三週間이나는저서 조흔果樹를增收한다

農事試驗場의이야기

イマツ殺虫劑는効力이强하야害虫은勿論매래등의頑固한害虫에게도잘効果를나타내다特히茶에는쉬이데이잘나다 藥劑를쓸수가업스나イマツ는作物에藥害가업스므로微妙한茶의風味를害하는念慮가업다고한다。

以上과가티 效力이强하고 人畜作物에 無害하고忌避、刺戟에優秀한效果를가진驅除는本劑以外에업스므로 이것을果樹에뿌리면나무가젊어지고完全果를增收한다。도菜蔬에使用하면發育이盛하야조흔收穫을엇고茶園에뿌리면 害虫을驅除하야 茶의風味와色을增하고

イマツ殺虫劑는 目下農林省當局의 作物과家庭害虫驅除에 專門으로 硏究하므로 念慮업시利用하시라 또農作物害虫驅除에對하야의 冊子를 希望者에게 進呈함

中大阪市大仁本町 今津化學硏究所에서는農作物과家庭害虫驅除의

飲食物의 昆虫驅除

必要한注意

飲食物保存의秘訣은 防虫劑의選擇이第一입니다、市場에서파는것은 イマツ防虫香이 가장好評입니다、效力이 强烈하지만 金絲銀絲와飮한生地를 傷하지안코從來化學製品의 缺點이엿든 變異가全然업서서 香水와가튼 洗滌된香氣가잇습니다、그러치만 價格이 大端히싸서 從來品의三分의一以下로 자못經濟的이다、藥店百貨店에서 販賣함

食事 時에파리가 飲食物과食器에안는것 처럼조흔것은업습니다、食事前約十分에 蠅取粉을좀뿌려두면 파리가한마리도안지안는故로 大端히衛生的입니다 꼭實行하십시요

그대로남는 故로決코房에파리가드러오지안습니다。

故로 그것을쏫쳐버리면 香氣는香氣로靑까쓰에 걸린것가티죽는면十分後에파리는 全部蠅取粉의取粉을少量、室內의空中에뿌려두 掃除 前에마도를닷고イマツ蠅完全히豫防한다、도徐徐 다、一日에一回式行하면 發生을 マツ芳香油를 뿌리던일이死滅한 말하자면 便所쏫테기중等에 イ 이가장 簡單하고안全하게하는것 먼저 發生前期에殺蟲하는것 效果가만타

何故로

中風 高血壓에 걸리는가

毒을解消하고、血液을淨化하는新療法完成

술、담배를먹는분 花柳病에걸린분 腎臟、糖尿病인분 肉食으로肥滿한분 神經質苦勞症인분

술을마시는분은特히腦溢血中風에걸리는것은 누구나잘압니다 지만 술뿐이아니라 梅毒이잇는분 花柳病、腎臟病、糖尿病、肉食을 조와하는분、肥滿한분、神經質苦勞症인분은 中風에걸립니다 이런분은四十歲가되면 頭重·上氣·眩氣·動悸 어질하는症·不眠·숨가쁜症·肩痛·腰痛 허벅뻣헤지는症·手足 마르는病·떠는病

中風·高血壓의 原因은 어느것이든지 血液에毒素가 [illegible] 이原因을 除去하야 血液을淨化하야 中風을豫防하고 治療하는 새로운 處方이 リキシン입니다 「イマツ」입니다

本劑는 [illegible] 醫學博士의 處方에 依하야 [illegible]

本劑는 [illegible] 全身의毒을 解消하야 血液을 淨化합으로 高血壓으로 前記 病狀을 感하고 腦溢血의危險이 잇는분、中風으로 藥效가 업서서 煩悶하는분은 リキシン을 服用하야 病原이되는 全身의毒을 解消하야 血液을 淨化함으로 速히 全快하시라

全國藥店에有함 二週間分二圓五十錢、五週間分[illegible]圓五十錢、[illegible]

大阪市大仁本町 今津化學硏究所 [illegible]

"低金利의影響"
銀行預金에여다가 土地에投資하야될가
●……申泰翊

그러면 金融緩和的으로 … 이것은 어떠한 … 大體 年六分 … 다시 말하면 …

各大紡績業이 朝鮮目標의進出
逆移入禁止의決議도無所用
統制域外自由天地로

日本內地大紡績業者의 進出은 注目할것이잇서 即 鐘紡、東洋紡、大日本紡의 三大會社의 平壤進出을 비롯하야 大日本紡의 永登浦工場建設着手、鐘紡의 全南光州工場擴張計劃에잇서서 大阪紡績의 資本系統에 依하야 釜山에 三染色工業株式會社創設에 大工場建設計劃及 福井縣人絹王 柳町氏도 永登浦에 大織布工場 建設計劃樹立으로 用地買收着手等이傳하는바 이原因은 日本內地에 엇서는 工業組合法의 鐵則에 束縛되어서 人絹布와 綿絲布의輸出統制를 行하야、製織、染色、加工品의 海外輸出에 制限를 加하고 更히 輸出品에는 國營檢查가 行하야 手數料를 밧는等 採算上 不利한 條件이잇合으로 이에서 버서나서 此等 實所가업는 朝鮮으로 몰려오는것인바 最近에는 日本內地의紡績業 二割六分五厘의 操短때문에 自社工場의 製織全能力을發揮할수 업게된 大會社는 이難局을 打開키 爲하야 朝鮮內工場의綿絲를 逆移出하야 이것으로서 補充하는傾向이 顯著케되엇合으로 紡績聯合에서는 過般의臨時總會에서 朝鮮滿洲製品의綿絲를 日本內地에移出함을 禁止한다는決議를 하엿스나、朝鮮內製品의 販路는 原價의關係上 日本內地의 自社製織工場에 使用하는以外 活路가업슴으로 그實效性이 疑問되고日本內地大資本紡績의 統制區域外로도 朝鮮進出에 더욱拍車를加하야 朝鮮은 往年의英國만체스타市와가튼 紡績王國의 建設을 보게될것이라고 한다

石油値上
깨쏘린除外
十五日頃實施

【東京電話同盟】石油聯合會社는 … 商工省의 承認을 得하얏슴으로 七日부터 實施키로되엿는데 이에 伴하야 重油、燈油、機械油等 全石油의値上을 近間斷行키로되엿다 引上價格에 就하야서는 目下協議中인바 까소린値上 價格으로보아 相當한 大幅의引上이 行될것으로보이며 實施期는 來十五日頃으로되리라한다

▲朝鮮도認可 日本內地의 石油値上決定과 同時에 朝鮮도 過般以來業者側으로부터値上申請이 提出되엿든바 總督府에서 審議한結果 日本內地商工省의値上認可에 基하야 七日부터 까소린等 値上을 認可하엿는데 이番揮發油의標準市價는 五十一錢에서 五十六錢으로 値上하엿다

改正無盡業法令
制令第六號로公布

既報＝總督府에서 無盡業의運用을 時勢에即應케하고 運用케하고저 改正立案中인 朝鮮無盡業令은 四日附制令第六號로서 公布되엇든바 그改正要點은如左하다

一、無盡會社의 營業區域은 道의 區域에依하야 定한것을地方經濟의 實情에照하야 今後는 이原則에 例外를認함

二、無盡會社의 餘裕金의 預托은 從來郵便局所、銀行或은金融組合에 限하얏스나 이것을 信託會社에의 金錢信託을 할수있게함

三、無盡會社의 合併은 銀行의 境遇와同樣、그手續을簡易케함

右乘令의 改正에伴하야 施行細則에도 一、二의改正을 施하고 從來往往히 法令의 精神을無視하고 事實上營業區域外에 住居를有한者와 無盡契約을 締結하는傾向이 잇섯스나 今後는 이關係를明記하야 乘令第七條의規定에違反하는取扱은 斷然取締키로되엇다한다

無盡協會總會
四日午前부터

朝鮮無盡協會第十三回總會는 四日午前十時半부터 京城商議第一會議室에서開催하고 出席者는全朝鮮無盡會社代表四十六名、總督府西崎理財課長、京畿道大島內務部長臨席、開會辭에이어 林財務局長訓示(西崎理財課長代讀) 京畿道知事(大島內務部長代讀) 賀田朝鮮商議會頭祝辭、佐野常務理事로부터答辭가잇고 昭和十年度事務報告와 決算報告承認件及昭和十一年度豫算案承認件을 原案대로 承認하고 會員提出議案의審議에入하야왓다

一、無盡關係法令改正의 境遇는 一應朝鮮無盡協會의 意見을徵키를 當局에要望할件

(理事會提出)

一、前木浦無盡會社長 故奈良次郞氏 表彰에關한件(理事會提出) 原案可決 方法은理事者一任키로한後 十一時四十分一同

官業再檢討
◇……馬場藏相企圖點

【東京電話同盟】馬場藏相은六日의閣議會議에서 官業의再檢討에言及키로되엇바 藏相이 企圖하는官業增收施行은

一、煙草販路의 擴張專賣金의增收策

一、鐵道益金繰入增加策

一、郵便貯金値上에 依하는通信特別會計增收

一、專賣事業과 一般官業經營의合理化、專賣事業과 一般官業의國民大衆에對한影響

이檢討의 對照가 될것이다 官業의 再檢討에 關聯하야 從來大藏省은 內閣調査局에서 秘密히研究를 繼續하는 砂糖、酒、麥酒、석냥等의 專賣案이 今後當然히 馬場財政에 依하야 捸頭의 對照가 될것인데 林業의官業은 明治時代의 標準販賣에 依하야 그實現에는 相當한 年限을 要하고 만흔困難이 相伴되는 때문에 以上과가튼 官業에 對하야는 內閣의 慎重한態度研究에 依키로하고 當面한問題로 馬場財政의 官業再檢討는 現行官業收益增加策如何에 잇다。이에 關하야 馬場藏相은 增稅와 國民의 한가지로 公債非募集하야國民에 批判을求하는同時에 그協力을 要望할터이라고한다

水組聯合認可
五月末에될豫定

…十一年度

今後米價昂騰은
消費大衆生活威脅

最近에 米價는 漸次로 昂騰을 보이고잇서서 定期米는 東京 大阪 仁川의 淸算米의 市勢가相當히 强硬한 모양인데 米界事情을 보건댄 朝鮮米를 左右하고 잇는 日本內地米는 再昨年과 昨年이 모다 凶年이엇는데 政府米는 現在七百萬石台가 반이너 안된다 政府米의 放出만으로는 過不足을 맞추기 어려운 데 日本內地의 民間所有米도 만치는 安定할수가 업슬것이고 또東北地方을 爲하야 日本內地의 朝鮮米의 貯藏이 업는것이 만흐라는 事情으로보아 本內地農村에는 米穀의 貯藏이 업슬것임으로 日本內地의 需給은 相當히 窮迫한狀態에잇다고 볼것이어서 昨今에 米價가 昂騰하고 잇는것도 이方面의 事情으로 表明하고 있는것이라고 볼것이며 또 一面에는 朝鮮米의 移出은 例年九百萬石台이든것이 今年은 實情으로 緊張한以上、朝鮮米가 移出累計 九百萬石臺를 限度로 今後二百餘萬石假量더 移出되리라하야 日本內地米價가 低落될때는 萬無하다고 볼것이며 그理由는 朝鮮移出米九百萬石은 日本內地의 需給狀態에 當然히 加算되어잇는것을 … 뜻대로 … 此外가리 되다면 朝鮮米는 日本內地의 市價를 充分히 維持하면서 高價를 持續하게될 것이니 이에 따라서 細民層에는 糧食의 不足이 生活難할모양이라고한다

經濟寸鐵

官吏노릇 하라면 朝鮮이 第一

○ 局長、知事級人物은 大槪 宇垣總督의 漸進主義로 特殊銀行會社의 長 或 理事로 轉出

○ 이번異動에도 二、三名의 實業界轉出이 豫想되는만큼 一部에서 搖擊聲이 매우 높다고

○ 누가 무엇이 되던 상관할배아니지만 朝鮮의 高官은 팔자 조흔것만 부러운일。

經濟界消息

○朝運五分配當內定＝朝鮮運送會社에서는十二日 決算重役會를 열리인데 株主配當은 年五分据로 內定하고 總會는 二十九日 열리라고

○穀物大會開催日字決定＝第三回朝鮮穀物協會聯合會大會는 九月十九、二十의兩日間 咸興公會堂에서 열기로決定하고 主催地丸元協會에서 諸般의準備를하는中이라고한다

○利原鐵山八朱配當＝利原鐵山에서는 五日京城本社에서 定期總會를 열리인데 配當은八朱据置가될모양이라고

▲取引停止(四月日)▲ 布卅

木商 京城府鐘路三丁目七番地 三五商會 金龍雲 ▲京城府光化門通 光化門비씨주 嚴奎燮 ▲京城府壽松町三丁目丸キ運送店小西吉郞 ▲京城府元町一丁目九四番地 丸ミ고무工業所 小林佐二郞

休業 …業務를 續行하리라한다

戒嚴令下에선 市勢昂進難期

議會는 今四日開院式을 擧行하고 六日부터 質問戰이 本格的으로 展開될터인데 果然統制經濟와增稅의 範圍가어떠나 明白케될것이지 市場으로서는 重大한要素가될것이다 … 戒嚴令下에 … 民心이 안정 …

株式 嫌氣物로 弛緩

前場伸惱 休日을 지난今前場은 亦是積極買는 依然警戒되어 新味업시 閑重伸惱이엇스나 即 再昨引에 比하야 東新 四錢低인 東新百三十圓八十錢、大新十錢低인 七十五圓九十錢、鐘新十錢高인 百五十二圓十錢 各大引되고 日産六十錢低인六十八圓九十錢에 弱하얏스며 北鮮製紙는 二十圓九十錢에 暴騰이고 二十圓四十錢에 亂調이엇고 拓新二十二圓十錢으로 二十錢이 잇섯다

▲東新 … ▲北鮮製紙 …

後場鈍重 後場은 東新百三十圓八十錢 鐘新百五十二圓九十에 困敗保合奇後 鈍重不勢趣으로 大引

商況(四日)

經濟市況 放送時間

京城放送局에서는 大阪放送局의 經濟市況放送을 中繼하는데 그時間은 如左하다

午前	午後
九時〇五分	一時〇五分
九時三十分	一時四五分
十時十五分	二時三十分
十時五五分	三時四十分
十一時半分	

東新未底入論

東京東新이 비록 단단한맛을 보이어 百三十一圓臺로 버티기는 하얏지만 그러타고 安心買의域에는 못치하고 依然東京東新百十九圓三十錢이 大底이나 아니냐는것이 觀測의 中心問題가되어잇는바 어떤사람은말하되 東新은 未底入이나 지금은戒嚴令下에 不安不去로 買付되지안엇스나 戒嚴令이 풀니어 人心이 安定되려하고 買付되거던 그는 絶好의買場이될것으로 그때에는 정말 大底入市勢가 나올것이다 云云

實物前場取引

東京國債市況

米價의大勢觀
아즉은買賛成

二年續騰의 力作이라지 前途昂騰은 누구나 否定하지못할모양이다 米穀統制法이 아니엇드면 적어도 當局市勢四十圓以上의高價를 벌서演出하엿슬것이나 그러나 最高公定米價인 一大障壁이 不遠한距離에 橫在한만큼 買方의 戰線을 縮少케하여 따아서 市勢의自由를 防止하고잇다 目前의市勢는 當局先限三十三圓十錢臺의 高價를演出하엿스니 最高公定價는 滿三三等米 即旭印을 目標하며 … 約一百丁박거남지안엇다 그럼으로 當當市勢三十五圓까지는 買進할수잇스나 그以上의 高價에는 買響

것도 또한 臆測에지나지못하는 말이다 그러나 大體市勢가 最高公定價格에까지 昂騰할것만은 事實일것이다

公定價格을 突破하게되는때는拂下米의威壓을 加하게될것이로主張하고잇스며 硬派는 此에對하야 米價가 公定價格을 突破될때에 天候가不順하다하면 政府의 拂下與否도 不拘하고 公定價格을 넘어서 四十圓臺의 高價도 無難할이라고 또한 主張한다 此兩方의 主張은 可謂我田引水의 論調로政府米를 悉皆拂下한다는것도 疑問이오 天災가잇서 四十圓臺를 突破한다는

政府拂下與否
兩方各自論調

벌서부터 日本內地에서는 飯米不足으로 昭和八年產米를 目標로 拂下의 申請이 遝至하는터인데 政府는 此에對하야 如何한 態度를取할가함이 問題이다 軟派는 日政府所有米가 昭和八年產의 四百萬石을 비롯하야總計六百五、六十萬石이나되는 民間으로서 最高公定價格에는 依한 拂下申請이 잇는때에는 此를 拂下한다는法的明文이잇는만큼 境遇에 依하야 全部拂下할수잇슴으로 結局民間에서消費할수잇는 十分量 …

米 期
急騰後의 一息

前場少落

再昨後場仁川三圓十三錢止의共히 卅圓六十七錢에保合止한當市場은 一休令朝에入하야 阪地初付卅三圓〇二錢十五錢인 十二丁反落을接하고 卅二圓九十四錢까지 少落하엿다가九十六錢에止擱함을迄하야 五十二錢으로 六十錢에擱을止하엿다

後場續軟 後場은三十圓五十九錢에 一丁低로 始擱後少弱步調로、五節 五十五錢에 不勢이고 五十五錢에止擱하다

今日財界(四日)

◆米

仁川期米 先限 …

大阪期米 先限 …

◆三等米 一石 …

正租(仁川)一等 …

一斤價 …

◆市中金利

◆株

朝新 東新 日産 大阪人絹 大阪棉花 大阪砂糖 高麗現 …

仁川在米減少[仁川]

五月二日現在 仁川在庫米는 前週에比하야 合格米는 四、六二五俵의 減退를 示하엿는데 在庫을 細別하면 左記와如하다

▲玄米(政)一七九、五三〇俵 …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仁川一息

白米二十一圓五十錢 橫濱하야 日本內地의 買氣가 相當하나 期米의 軟調參로 呆한丸仁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白米十二圓二十五錢

釜山同調

淸算一息과 價位觀으로 產地도 新規買物이 出하야 取引이 多少活況을 呈하나 依然 高價警戒로 買氣는 積極的이아닌 角ㇷ三等二十九圓九十錢 四等二十九圓六十五錢 一等

木浦少弱

當用側의 物色買와 日本內地定期側의 準備買로 亂調하야 相當한取引이잇섯는데 定期의 漸落으로 市勢는 十錢下放인 丸木三等 二十九圓八十錢 四等二十九圓六十錢 一等白米十二圓丁

群山保合

休日臭이잇드고 籾穀하야 日本內地의 買氣는旺盛하나 價位가 價位이만콤 期米의 保合을보고 不變唱인 栄ㇰ三等三十圓十錢 四等二十九圓九十錢 一等白米十三圓十錢

大邱不變

으리중안 買氣가 相當하나 急騰하던만콤 高價警戒가 强하고 取引은 잘되지안는 狀態로서 角ㇷ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十錢 一等白米十二圓六十錢

京城不變

今朝는 定期의 保合으로 取引이 不多이오 市況은不變인 丸仁三等二十九圓七十錢 四等二十九圓四十錢 一等

各地正米

市場六感

株 市勢는 依然保合▲東新百三十圓臺堅保나 伸力은 乏絶▲政治的 社會的으로 不安이 完全히 解消되지안엇고 戒嚴令을 解除치못하는 裏面에 또 무엇이 잇는것이 아닌가 하는 疑心暗示까지 不無하니▲ 黑然한 明朗人氣는 難期이오 從하야 昏迷는 當然▲戒嚴令下의 特輸에서 陸軍이 一、二六事件內容을 公開하리라하니▲ 獵奇的 興行價値는 滿點이나 녹어나는것은 株式市場▲무엇이 機會에서 튀어나올지는 모르나 지금안 程度以

米 新甫七限이 發會한後 三十三圓을 突破한 阪地先限은 三圓十三錢을 보이고서 反하지 안은것이다▲三圓臺를 割破하엿스나 低落을 招致할 材가업스니 深入할 餘力이어데잇슬야?▲問題의 政府의 拂下가 잇는때는 又復一落을 告할수잇스나그러치안는限에는또 다시 下落할것을可期▲果然政

上의 新規懸材料가 업다면 會半중 지난後부터 例의 金融市勢期待로 東新百三十六、七圓一百四十圓近處까지 갈지도 모르나 그로부터 정말 大底入에 向할것이 아닐가?

府는民間의 拂下申請에 對하야 如何히할것이가 此가注目꺼리▲非入札式으로 部分的拂下에 止하고말것이가 又는正式으로 入札의拂下를 發表하야 米界의緊張된人心을 緩和하게할것인가 此가問題▲何如間 大勢는拂下를하엿자 一時的으로結局大勢는 上放하고말이라고寧 派는主唱▲勿論 今年米價가最高公定價格에 達하기까지 昂騰할것은 無疑의事實이나 그러나그目標에까지 昂騰하는동안에는 相當한波瀾이 잇슬것도 事實▲何如間 押目買의 方針으로邁進하기만不如?

朝米取株 光皿 仁川府海岸町三丁目 康益復商店 京城府黃金町三丁目 金益證券株式會社 代表電話本局②一五一八六番

土金 大邱本町 高價 買入 金華堂 長電七一三番

金.銀.白金 京城德力 貴金屬現金高價買入地方注文 電話本局②3939 振替京城234 京城府明治町

土金 石金 高價買入 石福鑛業株式會社 金.銀.白金.地金部 長電本局四八五六

玉蜀黍購入 五圓四十錢也(正味百斤付) 大同江驛着上等麻袋一枚共 右價格으로各地取扱店及平南各產業組合平北產業組合聯合會에서 多量買入합니다 平壤府船橋里(大同江驛前) 日本穀產工業株式會社

金融(四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京城手形交換高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貨入價

◆東京市中貸金價

◆京城市中貸金價

米穀(四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商品(四日)

◆京城絲布市勢

◆京城綿布

◆鐵油價

◆綿糖沖價

◆ 砂糖沖價

◆天카豆期變

◆日本麥粉市勢

◆滿洲商況

◆大連特產市勢

◆大阪綿絲

◆大阪綿花

◆各地人絹

◆橫濱生絲

◆大阪砂糖

◆海外砂糖

株式(四日)

◆朝取短期

◆朝取短期賣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東定代引日步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期米(四日)

◆朝取期米

◆朝取期米賣買高

◆朝鮮內各地期米

◆大阪期米

◆大阪正米標準價

◆大阪期米取組

◆大阪市中在米高

◆東京期米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